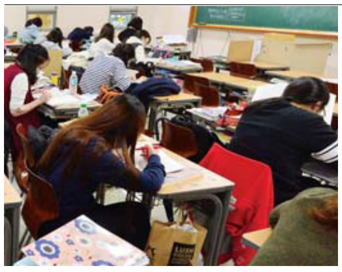


수능 D-3, 오답노트 체크를

metro®

메트로 2015년 11월 9일 월요일 제3337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6일>

코스피	2041.07	(−8.34)
코스닥	694.21	(−0.22)
금리(국고채 3년)	1.73	(+0.04)
환율(원·달러)	1142.00	(+3.50)

갤 S7 접히는 스마트폰 내년 2월 출시설

삼성 갤럭시 S6 후속작 언제 나오나 업계 '촉각'



한 해외 디자이너가 상상으로 만들어본 갤럭시 S7 콘셉트 이미지. 해당 이미지는 실제 S7과 관계 없다.

삼성전자 **갤럭시S6와 S7 성능 비교**

	갤럭시 S6	갤럭시 S7
주요특징	일체형 배터리, 무선 충전	3CA, 256쾀(QAM) 속도 600Mbps 지원(기존 450Mbps)
CPU	엑시노스7420 옥타코어	삼성전자 자체 통합(AP+모뎀)칩 퀄컴 스냅드래곤820 AP통합 칩
카메라	1600만 후면·500만 전면 카메라	2000만화소 · 듀얼카메라
디스플레이	5.1인치 슈퍼 아몰레드	5.2인치, 5.8인치 슈퍼 아몰레드(투트랙)
기타 기능	삼성페이	삼성페이, 3D터치

자료/ 외신 등 취합

S·노트 시리즈 한 발 빠른 출시
아이폰제품 샌드위치 공략 효과
해외 IT매체, 1~2월 출시 점쳐

삼성전자
"출시 루머, 항상 있던 일 구체적 발표 일정은 미정"

삼성전자의 차기 스마트폰 '갤럭시 S7'이 내년 2월 조기 출격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제품에 대한 다양한 추측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8일 휴대폰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차기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7'을 내년 2월 출시할 것이라는 설이 또다시 제기됐다. 앞서 해외 삼성 정보기술(IT) 전문매체 '샘모바일'과 '폰아레나' 등은 갤럭시 S7이 내년 1월에 출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갤럭시 S7이 세계 최초의 접히는 스마트폰이 될 것이라는 추측까지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매년 2월 열리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인 '월드모바일콩그레스(MWC)' 사전행사에서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S' 신제품을 공개하며 세계 이동통신 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다. 이후 제품의 출시는 통상 4월 말에 이뤄졌다.

그러나 갤럭시 S7부터는 출시를 2개월 가량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출시된 애플의 아이폰 6S에 대응해 프리미엄폰 판매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앞서 '갤럭시노트5'도 예년보다 1개월 빠른 지난 8월에 출시, 10월에 출시된 애플 아이폰 6S에 대응해 상당한 시장 선점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갤럭시 S7 조기 출시설이 불거지는 데는 갤럭시 S6가 예상만큼 흥행에 성공하지 못한 데다, 아이폰 6S의 돌풍이 거세 이를 서둘러 제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휴대폰 업계 관계자는 "삼성이 하반기 아이폰에 앞서 노트 시리즈를 출시하고 상반기도 갤럭시 S 시리즈를 빨리 출시해 아이폰 수요를 빼앗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갤럭시 S 시리즈와 노트 시리즈로 단일 아이폰 제품을 샌드위치처럼 싸는 전략이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신제품 조기 출시가 사업자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후속작 출시 일정이 빨라지면 기존 사용자들의 브랜드 로열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출시가 삼성전자에 오히려 제 살 깎기식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최신형 스마트폰이 채 1년도 되지 않아 구형폰이 돼버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갤럭시 S7에 대한 출시 일정과 더불어 다양한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갤럭시 S7이 '접이식' 스마트폰이란 설이다. 샘모바일은 접을 때 V자 모양을 보이는 폴더블 스마트폰을 내년 1월에 선보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폴더블 스마트폰은 '프로젝트 밸리'라는 이름 아래 한창 개발 중이다. 모델명은 SM-G929F로 정해졌다. 갤럭시 S6 엣지 플러스의 모델명이 SM-G928인 점을 감안하면 이 제품은 갤럭시 S6 엣지 플러스와 유사한 사양에 폴더블 화면을 갖출 가능성이 있다. 앞서 삼성전자가 지갑을 접는 것 같은 모양의 스마트폰 특허권을 출허한 것이 지난달 확인된 바 있기 때문이다.

다른 소문은 갤럭시 S7의 '스펙'에 대한 부분이다. 샘모바일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번 신제품이 롱텀에볼루션(LTE) 보다 8배 빠른 최대 600Mbps 속도를 지원하는 자체 개발 모뎀칩과 어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를 통합한 '원 칩'개발을 최근 마치고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모뎀+AP' 종합 칩은 퀄컴 등 해외 업체에 의존해 왔다. 독자적으로 원 칩을 개발해 제품에 대량 탑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외에도 갤럭시 S7에는 갤럭시 S6의 1600만 화소보다 높은 20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될 예정이다. 또 후면에 카메라 모듈이 2개인 듀얼렌즈 탑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 삼성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와 누르는 압력의 차이에 따라 동작하는 3D터치 등 이전 제품에 없던 새로운 기술과 기능이 대거 실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갤럭시 S 시리즈의 출시 루머는 어느 때나 있었다"며 "아직 갤럭시 S7에 대한 출시 계획은 잡혀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11일 오전 7시 30분, 뉴메트로 2015 재도약 선포식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초 단위로 쏟아지는 기술 혁신은 기업 환경을 바꾸고, 소비자들의 일상을 바꾸고, 문화와 전통마저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언론 환경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온라인 시대가 열린 지 10여 년 만에 '모바일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2002년 5월 31일 메트로신문은 기존 언론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며 새로운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정보원으로 사랑받았습니다. 가히 한국 언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모바일 시대에 낙제생이 됐습니다. 변해야 할 때 오히려 현실에 안주했습니다. 적자생존의 냉엄한 법칙을 잊은 결과입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예전의 모습에서 탈피해 새로운 메트로로 거듭나겠습니다. 경제 중심으로 시장경제 창달에 힘쓰고, 정보의 홍수에 빠져 있는 독자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메트로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1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뉴 메트로 2015 재도약 선포식'을 엽니다. 메트로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단단하고 튼튼한 주춧돌을 새로 놓는 심정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 ■ 행사 : 뉴 메트로 2015 재도약 선포식
- ■ 장소 : 서울 소공로 플라자호텔 별관 그랜드볼룸(B2F)
- ■ 일시 : 2015년 11월 11일(수) 오전 07:30~09:00
- ■ 문의 : 02-3448-3656(이메일 newmetro2015@metroseoul.co.kr)

M&A 5건 중 1건은 '롯데'

30대 그룹 총액 20% 달해

롯데가 인수·합병(M&A) 시장의 강자로 부상했다. <관련기사 3면>

8일 CEO스코어가 2010년부터 최근 6년간 국내 30대 그룹의 M&A성과를 분석한 결과, 롯데는 투자금은 30대 그룹 총액의 20%에 달했으며 인수자금으로만 7조6377억원을 사용했다.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보고서를 기준으로 경영권을 인수해 계열사로 편입한 M&A를 집계했다. 매각은 반영되지 않았다.

롯데는 30대 그룹 중에서 가장 활발한 M&A를 성과를 거두며 체질 개선에도 성공했다는 평가다.

롯데는 2011년 신동빈 회장의 취임 이후 가전양판(하이마트·1조2481억), 물류(현대로지스틱스·5999억원) 등 새로운 분야로 진출할 기반을 다졌다. 올해는 더 뉴욕팰리스 호텔(9475억원), KT렌탈(5056억원)까지 인수해 사업영역을 넓혔다. 여기에 지난달 30일에는 삼성그룹과 3조원대 삼성SDI 케미칼 사업부문, 삼성정밀화학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화학분야를 강화했다.

이 같은 M&A를 통해 2010년 87조2000억원 수준이던 롯데의 자산은 지난달 기준 117조3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이중 M&A로 인한 자산은 2010년 1조3000억원에서 지난달 기준18조8000억원으로 14배 이상 늘었다. 이는 롯데 전체 자산의 16%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유통업 기반의 롯데가 신 회장을 중심으로 한 M&A를 통해 미래 먹거리 사업 확보에 적극 나서는 걸로 분석하고 있다.

30대 그룹 M&A 성과 2위는 현대자동차(5조4934억원)가 차지했으며 그 뒤로 SK(4조4954억원), 포스코(4조1617억원), 현대중공업(3조871억원), CJ(2조8093억원), 한화(2조2436억원), 신세계(1조8484억원), LG(1조2969억원), 삼성 (1조2656억원)순이다. /김성현 기자 minus@

Is Chinese yuan going to be one of the reserve currencies? Good for Korean economy.

위안화 기축통화 반열 오르나… 한국경제 호재



"What governs the twenty-first century is not nuclear weapons, it is currency." (Ssonghung bing, director of global finance and economy of China and author of 'Currency war') "US dollars account for 83% of international currency market while yuans only account for 7~8%. There will not be many countries that would be happy with yuan to become reserve currency since the Chinese government is controlling its own currency"(Jeseph Nye, the chair-professor of Harvard University.)

The 'key currency war' is about to break out between China and the USA after having a truce since 2009.

The Chinese yuan is going to become key currency if it is included in basket of currencies through Special Drawing Rights(SDR) of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Thus, the fight for supremacy seems unavoidable between China and the USA since China will be trying to weaken the USA's power so that the country could boost its international power of yuan.

The algorithm would become complicated if yuan becomes the key currency, there is a predominant view that it will be beneficial for Korea on the whole.

Korean export companies' price competitiveness would increase if yuan climbs against won. By using the geographical advantage, Korea could establish a solid position as a yuan hub.

"21세기를 지배할 결정권은 핵무기가 아니라 화폐다." (쑹훙빙 중국 글로벌재경연구원장 저서 '화폐전쟁') "현재 국제통화 시장의 83%가 달러화다. 위안화는 7~8% 밖에 되지 않는다. 중국 정부의 통제가 이뤄지는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는 것에 달가워할 나라는 없을 것이다."(조셉 나이 미국 하버드대학 석좌교수)

지난 2009년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G2(미국과 중국)간의 '기축통화 전쟁'이 다시 가열되는 양상이다. 중국 위안화가 이달 말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되면 기축통화 반열에 오르기 때문이다. 최대 경쟁자인 미국의 전력을 분산시켜 위안화의 국제적 파워를 키우려는 중국과 미국의 패권다툼이 불가피해 보인다.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면 우리나라의 셈법은 복잡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의 통화 가치가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국내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간다. 지리적 잇점을 활용한 위안화 허브의 입지를 다질 수도 있다.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정치·사회



▲ 8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이번주중 박근혜 대통령의 총선용 2차 개각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 **새정치민주연합**이 '교과서 투쟁+민생' 투트랙으로 진로를 선회함에 따라 국회가 정상화 궤도에 접어들었지만 교과서 투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3주 남짓 남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기한이 맞물려 여의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를 제기했지만 청구권 시효가 지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 경기침체와 이로 인한 취업난 등 한국 사회구조가 취업 준비생이나 노숙인 등을 겨냥한 새로운 **한국형 범죄**를 양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급격한 사회 변화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불안해진 사람들이 늘면서 이들을 노린 범죄도 함께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입시 전문가들은 새로운 문제에 매달리거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먹지 않던 음식을 섭취하는 등의 새로운 시도는 피하고 규칙적인 생활로 컨디션을 끌어 올리라고 조언했다.



오랜만에 내리는 단비가 반가운 소양강댐 최근 가뭄으로 추위가 급감한 강원 춘천시 신북읍 소양강댐에 8일 오후 반가운 단비가 내리고 있다. 이날 소양강댐 수위는 167.47m로 여전히 예년 평균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산업·경제·라이프

▲ 삼성전자의 차기 스마트폰 **'갤럭시 S7'**이 내년 2월 조기 출시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제품에 대한 다양한 추측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앞서 해외 삼성 정보기술(IT) 전문매체 '샘모바일'과 '폰아레나' 등은 갤럭시 S7이 내년 1월에 출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갤럭시 S7이 세계 최초 접히는 스마트폰이 될 것이라는 추측까지 제기했다.

▲ **BMW코리아**가 2016년 신모델을 대거 출시한다. BMW는 소형차브랜드 '미니'의 디자인과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클럽맨' 신차를 조만간 출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소형 콤팩트카 X1부터 고성능 M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신모델까지 연이어 출시한다.

▲ BNK금융그룹, JB금융지주, DGB금융그룹 등 **3대 지방 금융지주**가 계좌이동제 시행에 맞춰 충성고객 잡기에 골몰하는 등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주거래 고객 우대 상품을 출시하고 비은행부문 사업 다각화를 검토하는 등 대형은행에 밀리지 않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 삼성화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 절반은 10~12월에 집중돼 있다. 안개길 대형교통사고는 감속운행 미준수로 인해 차량 간 속도편차가 확대돼 교통흐름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식의 해외 직구 시대(해외 증권투자)가 열리고,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영업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증권업계**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증권업계가 또 다시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인수합병(M&A)에 그 해법이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 **롯데그룹**이 M&A를 통한 체질개선을 시작했다. 기존 유통 중심에서 화학, 관광업을 육성하는 한편 금융권 진출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빼빼로데이**가 요일별, 날씨별 판매량 희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GS25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토요일과 일요일이 빼빼로데이인 경우 매출이 가장 낮았고 빼빼로데이 당일까지 11월에 비가 많이 내리면 매출이 감소했다.

▲ 영화 **'검은 사제들'**이 개봉 3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검은 사제들'은 개봉 3일째인 7일 토요일 하루 동안 58만1864명의 관객을 모아 누적 관객수 105만3236명을 기록했다.

▲ 넥센 히어로즈의 **박병호**(29)가 역대 아시아 타자 2위에 해당하는 메이저리그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 금액을 받았다. 메이저리그 구단이 박병호를 영입하겠다고 제시한 최고응찰액은 1285만 달러다.

국제



▲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로 위기에 놓인 **폴크스바겐**이 미국에서 문제가 된 디젤 차량의 소유주들에게 현금을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 차량의 현 소유주들에게 선불카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가 중국 최대 동영상 포털사이트인 여우쿠투더우를 인수한다.

▲ 미얀마에서 **자유 총선**을 위한 투표가 실시됐다. 민주화 운동 기수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1990년 이후 처음으로 참여하는 총선으로, 25년 만에 실시되는 자유·보통 선거를 표방하고 있다.

'신동빈의 롯데' 화학·레저·금융업 삼각편대

지난달, 화학계열사 초대형 M&A 체결
'롯데월드복합단지' 세계적 관광허브 목표

재계 5위 그룹인 롯데(회장 신동빈·사진)가 석유화학·관광 기업으로 변모할 준비를 마쳤다. 일본 재계에서도 롯데의 경영권이 안정되면 신 회장의 본격적인 금융사업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신격호(94) 총괄회장이 1967년 4월 롯데제과를 설립한 후 50여년만에 롯데가 새옷을 살아입게 되는 셈이다.

◆ 3조원대 화학계열사 인수 '빅딜'

롯데그룹은 지난달 30일 삼성SDI의 케미칼 사업부문과 삼성정밀화학에 대한 인수계약(삼성 BP 지분 49% 포함)을 체결했다. 3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양수도 계약으로 롯데그룹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M&A 사례다.

신 회장이 직접 제안한 이번 '빅딜'로 롯데는 규모의 경제 실현을 넘어 고부가가치 제품 수직계열화와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가 가능하게 됐다. 또 석유화학에 이어 정밀화학 분야에 새롭게 진출해 종합화학회사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롯데그룹 석유화학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의 지난해 매출액은 14조9000억원으로 이번에 인수하는 삼성그룹의 3개 화학 계열사 매출 4조3000억원을 합치면 그룹 내 화학분야 매출만 20조원에 육박한다.

다만 현재 중국·인도 등이 석유화학 사업을 확대하면서 관련시장에서 국내 수출이 다소 감소하는 것은 신 회장이 극복해야 할 과제다.

업계관계자는 "롯데의 석유화학 사업 확장은 한계에 다다른 유통업 위주의 롯데를 한층 더 발전시킬 것"이라며 "다만 신 회장이 일본의 기술과 중국의 생산성을 넘는 새로운 전략을 내놓지 않는다면 삼성만 득을 본 거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연간 1300만명 직접 관광객 유치

롯데그룹은 잠실 롯데월드타워 완공에 따른 관광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롯데월드타워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롯데의 목표다.

이를 위해 롯데는 잠실 석촌호수에 국내 최대 규모인 123m 높이의 대형 하모니 음악분수를 조성 중이다. 또 ▲세계 최고층(123층, 지상 500m)을 자랑하는 전망대 ▲국내 최초의 빈야드 클래식 전용홀 ▲세계 최대 스크린의 '아시아시네마 멀티플렉스' ▲국내 최장(85m) 수중터널 아쿠아리움 ▲높이 414m의 6성급 호텔, 세계 최대 실내테마파크 롯데월드어드벤처 등을 연계한 관광허브 조성을 진행 중이다.

롯데월드복합단지가 완성되면 연간 1300만의 관광객이 직접 유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롯데는 지난 2011년 12월 롯데몰 김포공항점을 연면적 31만4000㎡의 복합쇼핑몰을 선보였으며 지난해 11월 롯데몰 수원점, 12월 롯데몰 동부산점을 각각 오픈하며 본격적인 '복합쇼핑몰' 진출에 나서고 있다.

◆ 신회장 금융업 진출 카드도 만지작

화학과 관광 다음으로 롯데가 진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시장은 금융업이다.

일본 재계는 이번 신 씨 형제의 경영권 분쟁이 안정되면 신 회장이 금융업 확장에 나설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신 회장은 일본 명문 아오야마가쿠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콜롬비아대학교 대학원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거쳤다. 이 후 일본 노무라 증권 런던지점에서 근무하며 전형적인 뱅커의 길을 시작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현재 롯데의 지주사 일본 롯데홀딩스에 신 회장과 공동대표로 있는 츠쿠다 다카유키는 스미토모(住友)은행(현재 미쓰이 스미토모은행) 출신으로 오사카 로열호텔 대표이사 당시 신 총괄회장이 직접 헤드헌팅한 인물이다. 역시 뱅커 출신이다.

일본 롯데에 능통한 한 관계자는 "신 회장과 츠쿠다 대표는 예전부터 금융업 진출에 대해 여러차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신격호 총괄회장과의 의견차이가 금융업 확대에 걸림돌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영권 싸움이 끝난다면 신 회장과 츠쿠다 대표가 손잡고 한·일 합작 금융기업을 설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신 회장이 롯데의 러시아 진출을 공식 발표하면서 일부 기자들에게 금융업에 대한 포부를 언급한 것도 금융업 확대 가능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현재 롯데그룹 내 금융계열사는 롯데캐피탈, 롯데손해보험, 롯데카드 등이 있다.

한편 지난해 신 회장은 롯데손해보험을 통해 LIG손해보험을 인수해 금융업 확장을 시도했으나 LIG노조 측의 반대로 무산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롯데관계자는 "아직 금융업 확장 계획은 나온것이 없다"며 "당분간은 화학, 관광사업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제2롯데월드 조감도

美 호텔 삼키려는 中… '스타우드'도 먹잇감

중국의 왕성한 인수의지·미국은 뒤늦은 경계 시작
미국호텔 관심↑… 약 170억달러 규모의 거래될 것

미국의 일류호텔 인수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양국 기업의 싸움이 치열하다. 전세계 호텔업계 8위인 스타우드를 노리고 중국기업들과 미국의 호텔업체인 하얏트의 싸움이 한창이다. 중국기업들도 내부적으로 3파전으로 벌이고 있어 분위기는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중국기업 중 한 곳이 스타우드를 인수하게 될 경우 중국기업에 의한 역대 최대 규모의 미국기업 사냥이 된다.

8일 일본의 산케이신문은 "최근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 열기는 이상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지난해 가을 중국 자본이 뉴욕의 명문 호텔을 인수하면서 미국의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어 중국 측의 너무 왕성한 인수의지에 미국 측도 경계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하얏트가 자신의 역량을 넘어 인수전에 참여한 것도 중국에 대한 미국 측의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 하얏트는 뒤늦게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다. 지난달 27일(이하 미국시간) 하얏트의 인수전 참여 소식이 전해지고 하루만에 하얏트의 주가는 2% 가까이 빠졌다. 또 하얏트가 인수에 성공하더라도 그 효과는 기대 이하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얏트와 스타우드는 모두 고급 호텔 브랜드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하얏트의 부채는 2015년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의 약 0.6배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하얏트가 스타우드를 인수하게 되면 부채비율이 악화된다.

사정이 이러니 스타우드 인수전이 이상열기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인수전 열기에는 미국 언론들도 한 몫하고 있다. 경제전문 방송인 CNBC가 지난달 27일 중국 3개 기업의 인수 움직임을 보도하자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유력언론들도 후속 보도에 나섰다. 다음날 CNBC는 물론이고 CNN머니 등 여러 언론들이 하얏트 가세 소식을 일제히 보도하기도 했다.



전 세계에 35만 개의 객실을 보유한 호텔 체인 스타우드가 중국 기업의 먹이감이 되고 있다.
/스타우드 홈페이지

미국 언론들이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CNN머니에 따르면 중국 기업은 올해 이미 약 150억 달러 가량을 미국 부동산에 투자했다. 2005년 85억 달러보다 2배 정도 늘어났다. 특히 올해 들어 미국 호텔에 대한 중국기업들이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중국 안방보험은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최고급 명문 호텔 '월도프 아스토리아'의 인수를 올해 마무리 지었다. 20억 달러 규모의 거래다.

스타우드 인수는 이를 뛰어 넘는 규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약 170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13년 중국 육가공업체인 솽후이가 미국의 대표적인 돼지고기 가공업체인 스미스필드 푸드를 인수한 금액이 약 71억 달러 정도였다. 현재까지 최대 인수금액이다. 스타우드는 이 금액의 2배를 훌쩍 넘는다.

현재 스타우드 인수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중국 기업은 국부펀드인 중국투자유한책임공사(CIC)와 중국 4 위의 항공사인 하이난 항공 등을 산하에있는 HNA그룹, 호텔 대기업인 상하이금강국제호텔그룹 등이다. 중국 당국은 자국 기업 간 경쟁으로 입찰가가 오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1곳을 선정한다. 물밑으로는 인수전이 더욱 치열하다는 이야기다.

/송병형 기자 bhsong@

수능 D-3… 모의고사 오답노트 체크를



편한 자세가 최고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4일 앞둔 8일 서울 종로학원에서 수험생들이 수능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뉴시스

벼락치기로 점수 급등할 일 없어
전문가, 복습·개념이해 전략 추천
수능 시간표 맞춘 일과 연습 도움

오는 12일 치러질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3일 남은 이 시점 최상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수험생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입시 전문가들은 새로운 문제에 매달리거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먹지 않던 음식을 섭취하는 등의 새로운 시도는 피하고 규칙적인 생활로 컨디션을 끌어올리라고 조언했다.

◆ 무모한 벼락치기 버리고 '오답노트' 위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은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될 전망이다. 한 두 문제로 등급이 뒤바뀌는 경우가 우려됨에 따라 마킹 등 작은 실수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수능을 앞두고 '수능단어 빨리 외우는 법', '수능에 나오는 문제' 등 수험생들을 현혹시키는 방법들이 범람하지만 입시 전문가들은 남은 기간이 얼마 없는 상황에서 점수가 급등하는 일은 없다고 충고했다. 이 같은 요행은 오히려 그간의 공부 습관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제보다 6월·9월 모의평가 등에서 실수가 잦았거나 빈번하게 출제됐던 유형을 과목별로 점검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중·상위권 수험생들은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하위권 수험생은 복습과 개념이해 중심의 전략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시험 결과를 예측해 불안감을 키우지 말고 스스로 잘 할 수 있다는 최면을 걸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다.

◆ 먹지 않던 건강식·한약, 오히려 '독'

시험일이 나가올수록 불안한 마음에 평소 하지 않던 행동을 하는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있다. 먹지 않던 건강식, 한약 등을 먹거나, 하지 않던 어깨 마사지 등 익숙하지 않은 행동은 독이다. 체온 유지를 위한 용도로 평소 쓰지않던 전기장판이나 온수 매트 등의 사용은 몸의 급격한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어 위험하다. 대신 수능 일정에 맞춰 규칙적인 생활을 연습해보는 것이 낫다. 수능 첫 교시 시작이 오전 8시 40분이므로 늦어도 밤 12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어 오전 6시~6시 30분에 일어나는 것을 권한다. 되도록 평소 습관대로 수면을 취하되 감기 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얇은 홑이불을 덮는 편이 낫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이다. 긴장감으로 인한 소화불량이 우려되므로 수험 전과 당일, 소화가 잘되는 음식을 섭취하고 과식은 피해야 한다.

◆ 스탑워치 기능 시계, 반입·소지 '모두 불가'

수능시험장 반입금지 물품과 반입은 가능하지만 소지가 불가능한 물품 확인은 필수다. 가장 중요한 시계의 경우 아날로그와 디지털 모두 반입이 가능하지만 스탑워치 기능이나 문항이 표시되는 기능형 기기는 사용은 물론 소지 자체도 불가능하다. 개인 샤프나 예비마킹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등의 경우 소지는 가능하지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고 사용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다. 아울러 고등교육법 제34조 등에 따라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당해 시험은 물론 다음 연도의 수능 응시 자격도 제한된다.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1교시 전에 제출하지 않거나 시험 종료 이후 답안지를 계속 작성 하는 경우도 부정행위에 해당돼 시험이 무효처리되니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행위는 피해야한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수험장 난방 사전전검… 갓바위엔 기도 인파 북적

수능 D-3 이모저모

2016 대입수학능력시험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수능이 임박하면서 교육부는 문제지와 답지 배부를 시작했고 각 고사장의 난방시설 점검을 시작했다. 학부모들은 수험생의 합격을 기원하는 고된 여정을 시작했고 후배들은 선배들의 선전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수능을 앞둔 풍경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 문제지와 답지 배부 시작

교육부는 9일 오전 8시부터 부산 동·서부 시험지구를 시작으로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와 답지를 배부한다고 8일 밝혔다.

수능 문·답지는 수능시험 전날인 11일까지 각 시험지구에 옮겨진 뒤 시험 당일인 12일에 시험장으로 운반된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보다 9434명이 줄어든 63만1178명이 지원한 가운데 12일 전국 85개 시험지구 1212개 시험장에서 시행된다.

교육부는 문·답지를 안전하게 원활히 수송할 수 있도록 호송차량 사이로 끼어들기를 하지 말고 호송차량을 만날 경우 경찰의 지시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서울교육청 난방 사전점검

서울시교육청은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서울시내 각 고사장의 난방시설을 사전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내 총 214개교의 수능 고사장 가운데 시스템냉난방기가 설치된 161개교로, LG하이엠솔루텍, 삼성전자와 함께 냉난방기를 시운전해 이상 유무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시험 당일 고사장 인근 8㎞ 이내에 전문 상담원들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을 배치해 기기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복구함으로써 수험생들의 시험을 치르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합격 기원 인파 몰린 갓바위

8일 수능을 앞둔 마지막 주말 비가 내린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 대구·경북 명산 팔공산 갓바위에는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 등의 발길이 이어졌다. 갓바위는 보물 431호 '관봉 석조여래좌상'이 위치한 장소다. '정성들여 기도하면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들어준다'는 전설로 인해 매년 수험생을 둔 전국 수백만 명의 학부모들이 이곳을 찾아 자녀들의 대학 합격 등을 기원한다.

주말이지만 수능을 앞둔 8일은 도심공원과 유원지 등이 한산한 한편 갓바위와 같은 명소에는 수험생 부모들이 몰리는 이례적인 풍경이 연출됐다.

◆"언니들을 응원합니다"

경기도 부천의 가톨릭계 사립 소명여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유튜브 '수능 응원' 동영상을 올려 화제를 모았다. 이 동영상에는 강당과 교실 곳곳에서 촬영한 후배들의 응원메시지가 담겼다. 영상에는 직접 개사한 노래를 부르고 돌돌 말린 두루마리 휴지를 풀며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깜찍한 응원 퍼포먼스 등이 소개됐다. '언니는 재수(再修) 없어요', 'All 1등급 받으세요', '언니들 시험 잘 보라고 휴지 풀고 있습니다' 등 재치있는 격려 메시지는 선배 수험생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수험생에 200GB 메모리 쏜다

LG전자
25일까지 V10 구매자 대상

LG전자가 오는 12~25일까지 V10 구입 고객을 대상으로 200기가바이트(GB) 용량의 마이크로SD 카드를 증정하는 '수능 수험표 인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LG V10에 기본 탑재된 '기프트팩 앱'을 통해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는 수능 수험표와 함께 자신의 셀피를 찍어 기프트팩 앱에 올리면 된다. 인증 사진은 수험표 속의 수험번호, 증명 사진, 참여자 얼굴이 모두 선명하게 보여야 하며, 하나의 수험번호가 중복 등록될 시 무효 처리된다.

이번 메모리 카드 증정은 선착순 9000명에게 제공된다. 배송은 이벤트 마감 14일 이후부터 진행되며, 등록 순으로 순차 배송된다.

LG V10은 기본 64GB의 내장 메모리가 탑재된 제품으로, 200GB의 외장 메모리를 장착하면 노트북 수준의 저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IT 공룡 된 '대륙의 좁쌀' 가격을 파괴한다

2015 지구촌을 달군 기업 10

❸ 샤오미

메트로신문은 다가오는 2016년을 가늠하기 위해 올해 지구촌을 달궜던 글로벌기업 10곳을 골라 되돌아 본다.

'가격 파괴' 박리다매 전략 짝퉁 애플·싸구려 비난에도

빠른 피드백·문어발식 영업 배터리·미밴드 등 잇단 히트 소비자 "대륙의 실수" 애칭

올해 전 세계의 고객들은 중국 샤오미의 가격 파괴 행보에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지난해 샤오미는 웨어러블 피트니스 기기인 '미 밴드(Mi Band)'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올해는 보조배터리가 대히트를 쳤다.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파격적이다보니 고객들이 '대륙의 실수'라고 부를 정도다. 아이폰6를 6번 충전한다는 배터리(16000mAh)가 불과 2만 원, 심지어는 1만 원 중반대까지 가격이 내려간다. 저가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로 고성능 제품이 나왔다고 고객들이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

고객들의 놀람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샤오미는 또 다른 가격 파괴에 나섰다. 80만원대 초고화질(UHD) 4K 55인치 TV를 출시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30만원대 전동스쿠터인 '나인봇 미니(Ninebot Mini)'다. 원조인 세그웨이 제품은 처음 1000만원대를 호가했다. 이후 보급형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나인봇 미니'에 비하면 2배가 넘는 가격이다. 특허를 문제 삼는 세그웨이를 인수한 뒤 나온 제품이라 가격 파괴 효과는 더욱 컸다. 고객들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상황이다.

'대륙의 실수'라는 말도 '대륙의 작품'이라는 평가로 바뀌고 있다. '대륙의 실수'라고 하기엔 샤오미의 가격 파괴 제품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 외에 CCTV, 공유기, 공유기 겸 NAS(네크워크 결합 스토리지), 이어폰, 스마트 밴드, 스마트 TV, 셋톱박스, 스피커, 외장 배터리, 공기청정기, 이어폰 홀 커버, 샤오미 선정리기, 알미늄 합금 마우스 패드, USB방식 공유기, 정수기, 혈압 측정기 등이 온라인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히트작들을 모두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사실상 사물인터넷(IoT시장)을 거의 장악하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정도다.

◆ 샤오미 회의론 무색

샤오미가 2011년 9월 창업 1년만에 샤오미 '미1(Mi1)'으로 저가 스마트폰을 처음 출시했을 때 업계는 '애플의 짝퉁'이라고 평가했다. 짝퉁 왕국인 중국의 기업답다는 평가도 함께였다. 2013년 3.0%였던 시장점유율이 2014년 11.0%로 급성장하면서 중국 내수시장의 '빅 3'로 떠올랐을 때까지도 이 같은 냉소적인 시선은 사라지지 않았다. 중국 내수시장에 의존한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다.

샤오미 급성장의 배경인 '박리다매(薄利多賣)' 전략도 비판의 대상이었다. 회사의 생존을 표절에 기대게 된 근본원인이란 지적이다. '초박리다매'라고 할 정도로 이익이 박하다보니 애초 연구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독자적인 특허가 없다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없다. 결국 특허 문제에서 자유로운 중국 내수시장에 기댈 수밖에 없고, 중국 내수시장 규모가 크긴 하지만 언젠가 한계에 부딪칠 거라는 관측이 이어졌다.



지난달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샤오미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인 레이쥔이 새로 발표한 전동스쿠터 '나인봇 미니'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 지난해 샤오미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에 최초로 공개한 공시자료에 따르면 샤오미의 2013년 영업이익률은 1.8% 정도로 극히 낮았다. 또 최근 발표된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 자료에 따르면 샤오미는 올해 3분기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스마트폰 판매가 줄었다. 중국 내수시장이 흔들리고 화웨이 등 전통적인 강자가 탄탄한 저력을 발휘한 결과였다. 이를 두고 샤오미의 성장모델이 한계에 부딪친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 같은 샤오미 회의론은 어디까지나 스마트폰에 한정돼 있다. 특히 문제로 발목이 잡힌 제품도 스마트폰뿐이다. 스마트폰이 워낙 기술집약적 제품이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시장 밖에서 샤오미 회의론은 무색해진다.

◆ 샤오미식 생존법…"살아남는 자가 강자다"

샤오미 스스로도 자신을 스마트폰 제조업체로 보지 않는다. 샤오미의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빈 린은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샤오미를 장비 제조업체로 생각하지 않는다. 샤오미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인터넷 기업"이라고 말했다.

샤오미는 생산직 근로자를 따로 고용하지 않는다. 대만 폭스콘을 비롯한 전문 위탁생산 업체에 생산을 맡기고 있다. 판매와 배송도 온라인 쇼핑몰과 외부 배송망을 이용한다. 조립공장과 매장을 운영하고 제품 배송까지 직접 하는 삼성전자와는 완전히 다르다. 삼성전자가 제조업체라면 샤오미의 주장대로 '인터넷기업'인 셈이다. 이는 샤오미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유통망 관리 비용,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만큼 제품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샤오미의 판매 담당 부서 직원은 10여 명에 불과하다. 샤오미가 갖가지 종류의 제품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내놓을 수 있는 이유다.

'서비스를 판매한다'는 점도 샤오미의 경쟁력이다. 샤오미는 매주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한다. 그리고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아 신속히 처리한다. 이용자들은 샤오미의 진정성 있는 업데이트 자세에 열광한다. 회사와 고객 간의 관계가 아닌 인터넷 커뮤니티의 분위기와 흡사하다. 샤오미식 생태계의 구축이라고 해도 무방한 수준이다.

빈 린은 샤오미가 미국 스마트폰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가장 큰 장애물인 특허 문제도 해결책을 찾았다는 메시지인 셈이다.

중국 정부의 보호정책에 기대어 생존을 모색하던 과거의 모습이 아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라는 영화속 대사에 꼭 맞는 결론이다. 전세계의 소비자들은 2016년 샤오미발 또 다른 충격을 벌써부터 기대하고 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폴크스바겐, 현금으로 조작 무마 나서나

美고객에 1250달러짜리 선불카드 지급

폴크스바겐이 미국에서 문제가 된 디젤 차량의 소유주들에게 현금을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은 오는 9일 구체적인 현금 제공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앞서 자동차 전문 매체 '더 트루스 어바웃 카스'는 5일 미국의 폴크스바겐 차주들이 사용 제한이 없는 500 달러(약 57만원)짜리 선불카드와 폴크스바겐 딜러 매장에서만 쓸 수 있는 500~750 달러 선불카드 등 최대 1250 달러(약 142만원)를 받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회사 측에서 'TDI 친선 프로그램'이라고 이름 붙였다는 설명이다. 대상은 신차는 물론이고 중고차도 포함된다.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 차종의 하나인 폴크스바겐의 골프 블루 모션. /연합뉴스

그러나 회사측은 이 매체에서 언급한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한 소식통은 폴크스바겐이 이 프로그램을 포함해 모두 40억 달러(약 4조5000억원)를 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폴크스바겐은 지난 9월 디젤차량의 배기가스 조작 사실이 드러난 이후 차주들이 낸 민사 소송에 직면해 있다. NYT는 회사로부터 현금을 받은 차주가 소송을 포기해야 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폴크스바겐 임원들이 미국으로 출장을 갔다가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해 미국 당국의 조사를 받거나 기소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마티아스 뮐러 신임 최고경영자(CEO)가 이달 중으로 예정된 미국행을 취소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송병형 기자

국회 '개점휴업'은 면했지만…

교과서·예산안·청문회 등 곳곳 가시밭길

여야 원내대표 3+3 회동 본회의 일정 합의 불발

오늘 예결위 심사는 재개 공방전 재연 가능성 커

역사교과서 논란으로 사흘째 보이콧을 벌여온 새정치민주연합이 '교과서 투쟁+민생' 투트랙으로 진로를 선회함에 따라 국회가 정상궤도에 접어들고 있다.

여야 간 대치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교과서 투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3주 남짓 남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기한이 맞물려 여의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여기에 연기된 청문회는 물론 3년째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과 종교인 과세, 업무용 차량 과세 강화 등 세법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이면서 본격적인 예산·입법 전쟁의 막이 올랐다.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여야 원내지도부는 8일 오후 국회에서 3+3 회동을 갖고 본회의 일정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진통을 거듭했다.

이에 따라 청문회와 본회의 개최에 대해선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일단 9일부터 지난 한 주 야당의 보이콧으로 여당만 참석한 채 반쪽으로 열린 예산결산특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부별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여당 단독으로 심사한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데다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대여 공세를 재점화할 계획이어서 예결위 회의장에서는 또 한 차례 역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기획재정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6개 상임위 전체회의와 소위를 열어 계류 법안과 예산안 심의도 재개된다.

지난 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이후 여야가 각각 대국민 여론전을 펼쳤다면, 이제부터는 내년도 예산안과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법 처리를 놓고 국회에서 주도권 확보전이 시작될 전망이다.

아울러 오는 13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통과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팽팽한 힘겨루기도 예고돼 있다.

여야간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오는 10일 본회의를 개최한다는 데는 물밑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이날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안건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김태현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동의안,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 등이다.

다만 노동개혁 5개 법안이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체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포함한 여권의 핵심 추진 법률안의 처리 일정을 두고 접점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대치는 예산 감액, 증액 작업에 돌입하는 오는 12일 예산결산 소위에서 정점에 달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과정에서 예비비를 편성한 데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아울러 가뭄 극복을 위해 정부·여당이 4대강 사업으로 이뤄진 보(洑)의 물을 지천으로 연결하려는 예산에 제동을 걸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새마을운동, 창조경제, 나라사랑 정신계승 발전사업 등도 쟁점 예산이다. 정부 원안을 지키려는 새누리당과 이들 예산이 '대통령 관심예산'으로 과편성 됐다며 삭감하려는 새정치연합의 충돌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국회가 정상화에 돌입했지만 쟁점 사안이 산적한 만큼 여야간 긴장감은 극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새누리당 원유철(왼쪽)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살해 후 보험금 타내고… 명의도용 후 대출금 빼앗고

범행 대상 된 '취준생·노숙인'… 사회 약자가 운다

침체·양극화·취업난 등 자본사회 무한 경쟁 탓

경기침체와 이로 인한 취업난 등 한국 사회구조가 취업 준비생이나 노숙인 등을 겨냥한 새로운 한국형 범죄를 양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급격한 사회 변화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불안해진 사람들이 늘면서 이들을 노린 범죄도 함께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8일 사회학과 교수 등 전문가에 따르면 경기침체와 양극화로 취업 준비생과 노숙인이 범죄의 표적으로 떠오른 것은 최근이다. 구직난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취업 준비생들이 급격이 늘면서 이를 이용한 범죄가 늘어난 것이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고용이 불안정하고 취업이 어려운 사회임을 방증하는 셈이다.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노숙인을 살해해 보험금을 타내거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채는 등 노숙인과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는 형태가 더 악랄하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형태의 범죄다.

이 같은 범죄 유형의 양산이 신자본주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무한 경쟁의 단면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이들을 이익을 취하기 위한 도구로 남는다는 것이다.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불합리한 사회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무력감이 더 약한 피해자를 괴롭히는 형태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위험인지 능력이나 사후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의 경우 반복적인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은 더 크다. 성인보다 어린이나 노인을, 남성보다 여성을 노린 범죄가 많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같은 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는 간단치않은 문제다. 사회 구조라는 큰 틀에선 범죄 가해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다 이 같은 범죄가 사회, 경제 등 전반에 다양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취약층에 대한 범죄 예방 교육 강화와 사회 안전망 구축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한데 현실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위험을 알면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이나 이주민을 위한 한국사회·법교육 등을 늘려 보호능력을 길러줘야 한다"고 말했다. /연미란 기자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세종대에서 2015 SK 하반기 SKCT(SK종합적성검사)를 마친 취업준비생들이 시험장을 빠져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朴 대통령 주중 '총선용' 2차 개각



8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내주 박근혜 대통령(**사진**)의 총선용 2차 개각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치인 출신인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의 교체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정 장관을 포함해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도는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도 개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G20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및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있는만큼 내주 부분 개각을 목표로 후임 인선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각에는 출마설이 흘러나오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포함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윤 장관은 부산 지역 출마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연미란 기자

2015년 5차 벤처기업 공동채용

대한민국 우수벤처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열정적인 인재를 모집합니다



중소기업청과 (사)벤처기업협회는 우수한 벤처기업의 인재를 공동으로 모집합니다.

◆ 벤처기업 공동채용 지원사업이란?

매출액, 성장성, 연봉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우수벤처기업의 채용정보를 청년구직자들에게 제공하고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공동채용 참여기업 수준

신입사원 기준 연봉 2,200만원 이상의 정규직을 채용하고자하는 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벤처기업

지원방법

벤처전문취업포털 브이잡(www.v-job.or.kr)
공동채용관에서 기업별 세부 모집요강 파악 후 지원

지원자격

대학졸업자 및 특성화고 졸업자(예정자)를 포함한 미취업자

모집일정

2015.11.04(수)~2015.11.20(금)

채용절차

참여기업 합동채용공고 (협회-기업) → 지원자 모집 (협회-기업) → 1차 이력서 취합 및 검토 (협 회) → 기업별 지원자 추천 (협회→기업) → 2차 이력서 검토 및 면접 (기업-지원자) → 채 용 (기업 (개별일정))

문의처

벤처기업협회 인재지원팀 02)6331-7051~7054
E-mail : job@v-job.or.kr

- 5차 벤처기업 공동채용 주요 참여기업 -

▶ 선도벤처기업관 ◀

㈜휴온스
· 주생산품 : 완제의약품 · 매출액 : 182,340백만원
· 업종/분야 : 제조 · 직원 : 525명 · 지역 : 경기
모집내용 : 제약사 품질관리(QC)_충북제천 0명

MDS테크놀로지㈜
· 주생산품 : 임베디드SW · 매출액 : 105,300백만원
· 업종/분야 : SW 개발 및 공급 · 직원 : 250명 · 지역 : 경기
모집내용 : 기술영업, 기술지원 연구개발, 교육연구 0명

㈜슈프리마
· 주생산품 : 생체인식 보안제품 · 매출액 : 69,000백만원
· 업종/분야 : 제조/통신장비 · 직원 : 200명 · 지역 : 경기
모집내용 : R&D 부문(Cloud/SDK 개발, 서버 개발) 0명

알에스오토메이션㈜
· 주생산품 : PLC, 인버터 · 매출액 : 50,000백만원
· 업종/분야 : 전기전자 · 직원 : 152명 · 지역 : 경기
모집내용 : PCS 및 ESS 제조부분 0명

㈜이롬
· 주생산품 : 건강기능식품 등 · 매출액 : 46,400백만원
· 업종/분야 : 제조/도소매 · 직원 : 130명 · 지역 : 경기
모집내용 : 웰빙기기 개발/식품영업(경력) 0명

㈜한국이디에스
· 주생산품 : PineApp · 매출액 : 30,600백만원
· 업종/분야 : SW개발 · 직원 : 200명 · 지역 : 서울
모집내용 : JAVA 웹프로그래머 0명

한국정보인증㈜
· 주생산품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 매출액 : 29,500백만원
· 업종/분야 : 서비스 · 직원 : 80명 · 지역 : 경기
모집내용 : 개발 신입 경력/기술지원 0명

㈜세우테크
· 주생산품 : POS Printer · 매출액 : 26,610백만원
· 업종/분야 : 컴퓨터주변기기 · 직원 : 135명 · 지역 : 경기
모집내용 : 미니프린터 펌웨어 개발/해외영업 0명

㈜창의와탐구
· 주생산품 : 교육 · 매출액 : 25,000백만원
· 업종/분야 : 교육/서비스업 · 직원 : 250명 · 지역 : 서울
모집내용 : 사고력 수학, 창의력 과학 영재교육/상담 0명

㈜유라클
· 주생산품 : 소프트웨어 · 매출액 : 19,700백만원
· 업종/분야 : 소프트웨어개발 · 직원 : 130명 · 지역 : 서울
모집내용 : JAVA, jsp, JAVAScript 개발자 0명

㈜플라토
· 주생산품 : 자동차 전장, 디지털 가전/산전, 반도체, BIO-IT융합 · 매출액 : 17,000백만원
· 업종/분야 : 제조업 외 · 직원 : 23명 · 지역 : 경기
모집내용 : 반도체영업/연구개발 신입 및 경력모집 0명

㈜토마토시스템
· 주생산품 : 대학,공공기관 SI · 매출액 : 14,303백만원
· 업종/분야 : 소프트웨어개발 · 직원 : 224명 · 지역 : 서울
모집내용 : 하반기 IT개발직 신입사원 공개채용 0명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 주생산품 : 소프트웨어개발 · 매출액 : 10,576백만원
· 업종/분야 : 서비스 · 직원 : 157명 · 지역 : 서울
모집내용 : 기업용SW 및 모바일 솔루션 개발 0명

프리닉스㈜
· 주생산품 : 스마트폰 포토 프린터 · 매출액 : 10,000백만원
· 업종/분야 : 제조 · 직원 : 45명 · 지역 : 경기
모집내용 : APP개발(안드로이드,IOS)펌웨어 0명

㈜휴머스온
· 주생산품 : 메세징솔루션 · 매출액 : 9,800백만원
· 업종/분야 : 소프트웨어 개발 · 직원 : 55명 · 지역 : 서울
모집내용 : 개발/영업/마케팅 0명

▶ 우수성장기업관 ◀

㈜한산에이엠에스텍크
· 주생산품 : 전력량계, 원격검침시스템 · 매출액 : 20,561백만원
· 업종/분야 : 제조/도소매 · 직원 : 19명 · 지역 : 경기
모집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직/영업관리 0명

㈜ 엔젤
· 주생산품 : 전기녹즙기,기어 · 매출액 : 8,731백만원
· 업종/분야 : 제조 · 직원 : 85명 · 지역 : 부산
모집내용 : 기구(모터)설계 0명

㈜ 생상
· 주생산품 : 교육컨텐츠마케팅 · 매출액 : 8,624백만원
· 업종/분야 : 서비스 · 직원 : 20명 · 지역 : 서울
모집내용 : 총무/마케팅기획/SNS운영관리/홈페이지 기획/카피라이터 0명

㈜ 에스엠케이
· 주생산품 : 메모리/배터리팩 · 매출액 : 8,100 백만원
· 업종/분야 : 제조 도소매 · 직원 : 10명 · 지역 : 경기
모집내용 : 해외(기술)영업 및 무역(메모리/배터리팩/IC)경력 사원 0명

퀄맥스시험기술㈜
· 주생산품 : 반도체 TEST핀과 소켓 · 매출액 : 7,861백만원
· 업종/분야 : 제조 · 직원 : 77명 · 지역 : 경기
모집내용 : 구매지원, 자재관리 및 물류관리(경력) 0명

㈜ 디오메디칼
· 주생산품 : 정형외과용 IMPLANT · 매출액 : 6,147백만원
· 업종/분야 : 의료기기 제조 · 직원 : 46명 · 지역 : 경기
모집내용 : 크린룸 포장 및 검사 0명

㈜ 이와이드플러스
· 주생산품 : 웹,모바일,앱,UI/UX 등 · 매출액 : 6,071백만원
· 업종/분야 : 디지털웹에이전시 · 직원 : 87명 · 지역 : 서울
모집내용 : 기획/마케팅/영업 0명

㈜ 에이티바이오
· 주생산품 : 애견사료 · 매출액 : 4,800백만원
· 업종/분야 : 식품가공 · 직원 : 46명 · 지역 : 경기
모집내용 : 애완동물산업관련 마케팅 0명

레드원테크놀러지㈜
· 주생산품 : 아동로봇플랫폼 등 · 매출액 : 2,036백만원
· 업종/분야 : 전기/전자/제어 · 직원 : 13명 · 지역 : 광주
모집내용 : 연구개발/사무(행정,회계,경리) 0명

㈜태성에스엔아이
· 주생산품 :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 BIM · 매출액 : 1,400백만원
· 업종/분야 : SW개발 및 공급업 · 직원 : 35명 · 지역 : 서울
모집내용 : 토목 건축 BIM, 3D 모델링 0명

㈜ 오로라디자인랩
· 주생산품 : 임베디드 기기 · 매출액 : 912백만원
· 업종/분야 : 제조 및 서비스업 · 직원 : 8명 · 지역 : 서울
모집내용 : IOT 관련플랫폼 및 SYSTEM 프로그램개발 0명

온라인바다㈜
· 주생산품 : ToBe_ERP 솔루션 · 매출액 : 855백만원
· 업종/분야 : 소프트웨어 개발 · 직원 : 12명 · 지역 : 서울
모집내용 : 프로그램개발 및 ERP솔루션 영업 0명

이노넷㈜
· 주생산품 : 무선통신장비 외 · 매출액 : 721백만원
· 업종/분야 : 제조 · 직원 : 8명 · 지역 : 경기
모집내용 : F/W,S/W,H/W분야, 기구 개발 연구원 0명

제이엠그린
· 주생산품 : 알알이쏙, 더블세이브도마 등 · 매출액 : 700백만원
· 업종/분야 : 제조 · 직원 : 9명 · 지역 : 경기
모집내용 : 무역/해외영업/제품서비스영업 0명

㈜ 주피터코퍼레이션
· 주생산품 : 소프트웨어 · 매출액 : 350백만원
· 업종/분야 : SW개발 및 공급업 · 직원 : 10명 · 지역 : 서울
모집내용 : 안드로이드 개발자 0명

▶ 연봉우수기업관 ◀

㈜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 주생산품 : 유전자시약/바이오신약 · 매출액 : 9,276백만원
· 업종/분야 : 무역 · 직원 : 107명 · 지역 : 경기
모집내용 : 영업지원(상품구매 및 재고관리/웹디 및 운영관리) 0명

㈜ 화동뉴텍
· 주생산품 : 자동차부품 · 매출액 : 8,600백만원
· 업종/분야 : 제조업 · 직원 : 44명 · 지역 : 강원
모집내용 : 자동차부품 품질관리 담당 0명

㈜ 개마텍
· 주생산품 : 기능성코팅용액 · 매출액 : 8,445백만원
· 업종/분야 : 제조/도매 · 직원 : 23명 · 지역 : 대전
모집내용 : 기능성코팅소재 연구개발 경력(선임급) 0명

㈜ 메가메디칼
· 주생산품 : 의료장비 · 매출액 : 8,100백만원
· 업종/분야 : 제조 · 직원 : 40명 · 지역 : 강원
모집내용 : 전략사업부, 영업지원부 모집 0명

㈜ 콘웰
· 주생산품 : SW개발 및 공급 공정제어설계 · 매출액 : 7,331백만원
· 업종/분야 : SW개발자문 · 직원 : 69명 · 지역 : 경기
모집내용 : MES/공정제어/품질관리 SW개발(C#개발자, PLC) 0명

㈜ 케이오비에이
· 주생산품 : 완충기 · 매출액 : 7,000백만원
· 업종/분야 : 기계/기계설비 · 직원 : 60명 · 지역 : 서울
모집내용 : 자재구매 경력 (남1명/여1명)

㈜ 씨엔에이치시스템
· 주생산품 : RF Repair 및 순간정전보상장치 · 매출액 : 7,000백만원
· 업종/분야 : 제조 · 직원 : 32명 · 지역 : 경기
모집내용 : RF Repair/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 0명

훼스텍㈜
· 주생산품 : 교육용기자재 · 매출액 : 6,875백만원
· 업종/분야 : 제조,도소매 · 직원 : 25명 · 지역 : 서울
모집내용 : 기술지원 및 PLC 프로그램 0명

화이트정보통신㈜
· 주생산품 : SW패키지 · 매출액 : 6,529백만원
· 업종/분야 : SW개발및 공급 · 직원 : 64명 · 지역 : 서울
모집내용 : [e-HR구축]PL급 경력(java,sql,jsp) 0명

시지엔지니어링㈜
· 주생산품 : 토목엔지니어링 · 매출액 : 6,200백만원
· 업종/분야 : 서비스 · 직원 : 16명 · 지역 : 서울
모집내용 : 토목설계 0명

㈜ 모니터랩
· 주생산품 : 웹방화벽, DB접근제어 등 · 매출액 : 5,300백만원
· 업종/분야 : 소프트웨어 개발 · 직원 : 64명 · 지역 : 서울
모집내용 : 글로벌마케팅 0명

라온피플㈜
· 주생산품 : 산업용 머신비전 솔루션 · 매출액 : 5,276백만원
· 업종/분야 : 소프트웨어 · 직원 : 52명 · 지역 : 경기
모집내용 : 2016 신입, 경력 사원 공채 0명

㈜ 픽소니어
· 주생산품 : 과학기술 소프트웨어 · 매출액 : 5,081백만원
· 업종/분야 : 서비스, 제조 · 직원 : 46명 · 지역 : 대전
모집내용 : SW개발 응용프로그래머(C/C++,C#) 0명

㈜ 오에치케이
· 주생산품 : 슬러지 탈수,농축장치 · 매출액 : 4,617 백만원
· 업종/분야 : 환경설비 기계제조 · 직원 : 20명 · 지역 : 충남
모집내용 : 수질환경 기술자/기계공학 기술자 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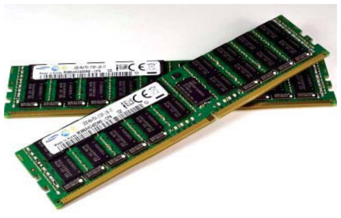
㈜이너버스
· 주생산품 : 소프트웨어개발공급 · 매출액 : 4,383 만원
· 업종/분야 : 서비스 · 직원 : 32명 · 지역 : 서울
모집내용 : 클라우드 사업 및 솔루션 마케팅 업무 0명

중소기업청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KOVA (사) 벤처기업협회 KOREA VENTURE BUSINESS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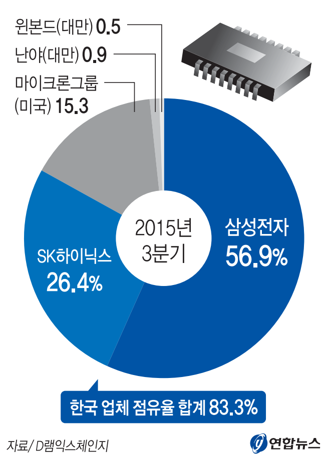
한국산 모바일 D램 83% 점유… 세계 시장 평정

83% 넘으며 역대 최고치
삼성 56.9%로 압도적 1위
2위 SK도 美·대만에 압승



삼성전자 DDR4 모듈. /삼성전자

모바일 D램 업체별 점유율



반도체 모바일 D램 시장에서 한국 업체의 점유율이 83%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8일 반도체 전자상거래사이트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올 3·4분기 모바일 D램 부분 매출 점유율 순위는 1위 삼성전자 56.9%, 2위 SK하이닉스 26.4%, 3위 마이크론그룹(미국) 15.3%, 4위 난야(대만) 0.9%, 5위 윈본드(대만) 0.5% 순이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점유율 합계는 83.3%로 지난 2·4분기(81.5%)보다 1.8%포인트 올라갔다.

압도적 점유율의 기준인 80%를 훌쩍 뛰어넘어 두 분기 연속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매출액 기준으로 따져도 삼성전자의 25억8600만 달러와 SK하이닉스의 12억 달러는 D램익스체인지에서 모바일 D램 매출을 별도로 집계한 이후 두 업체가 각각 기록한 최대 실적이다.

특히 2위 SK하이닉스와 3위 마이크론그룹의 격차가 11.1%포인트로 벌어졌다. 2013년 3·4분기 마이크론 진영의 엘피다(일본) 인수 이후 SK하이닉스가 격차를 10%포인트 이상 벌려놓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3·4분기에 SK하이닉스가 무려 30.5%에 달하는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덕분이다.

삼성전자가 16.5%, 마이크론그룹이 9.2%의 매출 성장률을 보인 반면 SK하이닉스는 경쟁업체들과 비교해 거의 2~3배 성장률로 매출액이 급증했다.

삼성전자가 D램 전체 시장에서 올해 3분기에 업데이트된 2·4분기 시장 점유율(매출) 기준으로 45.2%를 기록,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모바일 D램 부문에서는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린 것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22일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2007년 전체 D램 매출에서 약 3%에 불과하던 모바일 D램 비중을 2012년 이후 30% 수준으로 확대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 3·4분기에는 그 비중을 30% 후반까지 확대했다"면서 "프리미엄 제품의 판매를 계속 확대해 4·4분기 D램 제품 믹스 가운데 40% 이상을 모바일 D램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한화그룹, '청년희망펀드' 40억원 기부

청년일자리 창출에 동참



한화그룹은 김승연회장(사진)과 그룹 임원진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성 중인 '청년희망펀드'에 40억원을 기부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회장이 사재 30억원을 기부하고 그룹 임원진이 10억원을 마련한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김승연 회장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공감하며 미래 주역인 청년이 바로 설 수 있는 마중물 마련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한화그룹은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1만7500여개를 창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한화는 올해 하반기 고용 규모를 상반기의 2배로 확대한다.

한편 한화그룹은 충북 진천과 음성에 건설 중인 1.5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 셀공장과 500메가와트(MW) 규모 모듈공장, 연말 개장을 앞둔 여의도 63빌딩 내 갤러리아 신규면세점 등에서 새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을 밝혔다.

/정은미 기자

LiBS 생산라인 재가동… 업계 1위 노린다

<이차전지 핵심부품>

SK이노베이션
전자정보소재 사업 확대키로

SK이노베이션이 청주공장 내 리튬이온전지 분리막(LiBS) 1호 생산라인의 재가동에 들어간다. 최근 폴크스바겐 사태의 여파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속에 들어가는 베터리 필수 부품인 LiBS 주문량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은 LiBS와 전기차 배터리 등을 묶어 전자정보소재(B&I)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최근 청주공장 LiBS 1호 생산라인을 재가동하기로 결정하고 일부 설비 보완 후 오는 12월 중 상업가동에 착수키로 했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청주공장 1~3호, 증평공장 4~9호 등 모두 9기의 LiBS 생산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청주 LiBS 1호 생산라인은 수요 감소 등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가동이 중단됐다.

LiBS는 SK이노베이션이 2004년 12월 국내 최초로 개발한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핵심 부품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일본 아사히 카세이, 도넨에 이어 세 번째로 개발에 성공했다.

SK이노베이션이 LiBS 설비 재가동에 들어간 것은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의 수요 증가 때문이다. 리튬이온 이차전지를 필수 부품으로 사용하는 전기차 시장은 최근 폴크스바겐 사태로 인해 가파른 성장이 예상된다. IT기기 시장 또한 매년 새로운 트렌드에 따라 신규 제품이 지속적으로 출시되면서 LiBS 수요를 이끌고 있다. 배터리 전문 시장 조사업체인 B3는 글로벌 LiBS 시장이 오는 2020년까지 연평균 17% 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LiBS 설비 풀 가동을 기점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른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정문경 기자



LG전자는 현지시각 6일부터 열흘간 프랑스 파리의 쇼핑몰 보그르넬에서 올레드 TV 로드쇼를 진행하고 있다. /LG전자

LG전자, 올레드TV '로드쇼'로 佛 공략

프랑스 파리서 열흘간 진행
첫날부터 관람객 이목 집중

LG전자는 지난 6일(현지시간)부터 열흘간 프랑스 파리의 쇼핑몰 '보그르넬'에서 올레드TV 로드쇼를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LG전자는 올레드TV 12대로 전시관을 꾸몄다. 회사 측에 따르면 로드쇼 첫 날 현지 거래선, 취재기자, 관람객 등 1만여 명이 LG 올레드 부스를 방문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LG전자는 이번 로드쇼 기간 중 전시관을 찾는 관람객이 15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LG전자는 이번 로드쇼의 주제를 '대조(對照)의 전시회 – 완벽한 블랙의 풍부한 색감'으로 정했다. 이는 올레드TV가 빛의 기본 바탕인 검은색을 완벽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더욱 풍부한 색감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LG전자는 이번 로드쇼를 통해 올레드TV의 압도적인 화질로 색상에 대한 높은 안목을 가진 프랑스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LG전자는 TV CF는 물론, 에펠탑 인근의 번화가에 설치한 가로 22m, 세로 13m의 초대형 옥외 광고판을 통해서도 올레드TV를 알리고 있다.

LG전자는 올레드TV에 대한 고객들의 감동과 전문가들의 호평이 판매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LG전자 프랑스법인장 최보환 상무는 "까다로운 안목을 가진 프랑스 소비자들에게 올레드의 압도적인 화질로 프리미엄 TV의 진정한 가치를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포천紙, LG 올레드TV 극찬… "다른 TV를 볼품없게 만들어"

글로벌 경제전문지 '포천(Fortune)'이 LG 울트라 올레드TV에 대해 극찬했다.

8일 TV업계에 따르면 포천 에디터 돈 레이싱어는 최신 LG 울트라 올레드TV(65EF9500)를 시청한 뒤 "다른 TV 제품을 볼품없이 만들게 하는 TV"라고 평가했다. 포천은 LG 울트라 올레드TV의 화질에 대해 "여태껏 경험했던 화질을 뛰어넘는 최고의 화질을 경험했다. 탁월함 그 자체"라고 평가했다.

LG전자 측은 "올레드TV는 각각의 화소가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완벽한 블랙을 구현한다. 이 같은 강점 덕분에 HDR에 최적화된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은미 기자

BMW, 내년엔 '친환경·미니'로 시장 휩쓴다

<MINI>

클럽맨·콤팩트카 X1 등 2016년 모델 발표하며 세단부터 소형까지 수입차 시장 선도



BMW가 '클럽맨' 신차를 조만간 출시하고 친환경 라인업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X5와 3 시리즈, 하반기 7시리즈 PHEV 모델을 공개한다. /BMW코리아

BMW코리아가 2016년 신모델을 대거 출시한다.

BMW는 소형차브랜드 '미니'의 디자인과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클럽맨' 신차를 조만간 출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소형 콤팩트카 X1부터 고성능 M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신모델까지 연이어 출시한다. 올해 32개 모델을 공개한 BMW는 내년에 대형 세단부터 소형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는 등 수입차 시장을 선도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에는 PHEV 모델로 친환경 라인업을 강조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e)드라이브' 친환경 라인업 강화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BMW는 고성능 모델뿐 아니라 PHEV 모델을 잇달아 출시하며 친환경 라인업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X5와 3시리즈, 하반기 7시리즈 PHEV 모델을 공개할 예정이다.

BMW 친환경차 전략의 핵심은 '이드라이브(edrive)'를 정규 양산 차량에 확대 적용,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0)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드라이브는 BMW의 i시리즈 서브 브랜드에만 적용돼 왔다.

그러나 내년에는 정식 브랜드에도 적용된다. 상반기 출시될 X5 40e는 중형 SAV(스포츠 액티비티 비히클) 모델로, 전기 주행만으로 최대 30㎞를 주행할 수 있다.

오토 이드라이브 모드 상태에서 전기 주행시 최고 속도는 70㎞/h, 맥스(MAX) 이드라이브 모드에서 최고 속도 120㎞/h까지 전기 주행이 가능하다. 최대 시스템 출력 313마력, 최대 토크는 45.9㎏·m, 연비는 유럽 기준으로 29.4~30.3㎞/L,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당 77~78g을 구현했다.

3시리즈 PHEV 모델인 330e는 모터 마력 88, 엔진 마력 184로 전기 주행시 최대 35㎞를 운행할 수 있다. 연비는 47.6~52.6㎞/L,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당 45g이다. 지난 9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선보인 7시리즈의 PHEV 모델인 740e는 하반기 출시 예정이다. 전기모터와 4기통 가솔린 엔진이 조합돼 최고출력 326마력을 발휘하며 전기 모드로만 120㎞/h까지 가속이 가능하고 전기주행거리는 연비는 유럽 기준 47.6㎞/L다.

BMW 상품기획담당 김진환 매니저는 "이드라이브를 적용한 PHEV 모델은 내년 상·하반기로 나눠 출시할 예정"이라며 "순수 전기 힘만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클럽맨' 미니 브랜드 중 가장 넓은 공간 자랑

'미니' 브랜드도 사업을 강화한다. BMW는 프리미엄 소형차 '미니 클럽맨' 신모델을 오는 20일 국내에 출시할 예정이다. 뉴 미니 클럽맨은 고유의 콤팩트한 외형과 민첩한 핸들링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종전 모델에 비해 전장을 25㎝ 늘림으로써 실내공간을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신형 클럽맨에는 또한 미니 브랜드 중 처음으로 8단 스텝트로닉 변속기가 탑재돼 주행이 한층 더 부드러워졌다. 후면부를 좌우 양방향으로 여닫는 스플릿 도어는 신형 모델에도 적용됐다. 차량 키를 소지한 운전자가 후면 에이프런 아래로 발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도어를 자동으로 열 수 있다. 양손에 짐을 든 운전자를 배려한 첨단 기능이다.

승하차할 때 사이드 미러에서 바닥으로 미니 로고를 약 20초간 비춰주는 '웰컴라이트 카펫' 기능은 운전자에게 작은 재미를 선사할 것이라고 BMW그룹 코리아 측은 전했다.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전동식 시트 조정장치 등도 신형 클럽맨에 적용되는 편의사양이다. BMW는 이번에 가솔린 모델을 먼저 내놓고 내년에 디젤 모델과 미니 컨버터블 모델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해외서 더 잘 팔리는 '국민소형차' 프라이드

글로벌 시장서 400만대 판매

'국민 소형차' 프라이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400만대 판매를 돌파했다.

기아자동차는 1987년 1세대 모델을 시작으로 현재의 3세대 모델(UB)까지 프라이드 시리즈를 선보여 올해 10월까지 국내와 해외 시장에서 총 401만9524대를 팔았다.

8일 기아차에 따르면 프라이드는 1994년에 100만대 판매를 돌파한 이후 2009년에 200만대, 2013년에 300만대 고지를 차례로 넘어섰다. 그리고 불과 2년만에 400만대 판매기록을 달성했다.

프라이드는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훨씬 더 많이 팔렸다. 기아차 수출 1위 차종이 프라이드로, 지금까지의 누적 해외판매는 313만6193대다. 국내에서는 88만3331대가 팔렸다.



기아자동차의 프라이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400만대 돌파했다. /기아차

1987년 첫선을 보인 1세대 프라이드는 '국민차'로 불리며 큰 인기를 누렸으나 후속 모델인 아벨라와 리오에 주력 소형차 자리를 내주고 2000년 국내에서는 단종됐다. 2002년부터 2004년 사이 중국에서 소량 생산·판매된 후에는 아예 사라졌다.

이후 프라이드는 2005년 소형차 리오의 후속모델(JB)로 다시 돌아왔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는 3세대 프라이드가 판매되고 있다. 기아차는 2009년 준대형 세단 K7을 시작으로 영문자 K와 차급을 의미하는 숫자를 더해 차명을 정하는 K시리즈를 선보였다. 하지만 소형차 프라이드는 고객들의 선호에 따라 종전처럼 차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프라이드는 1세대부터 3세대까지 모든 모델이 100만대 이상 판매돼 '밀리언셀러 클럽'에 가입하는 진기록도 세웠다.

특히 3세대 모델은 2011년 출시 이후 매년 40만대 가까이 판매되는 등 1·2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단종 전까지 200만대 돌파도 기대된다.

기아차 관계자는 "30년 가까이 고객의 사랑에 힘입어 소형차 역사에 다시 한 획을 그었다"며 "기아차의 자부심을 넘어 한국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피터 슈라이어 현대·기아차 디자인총괄 사장이 4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론칭 행사에서 베일에 싸인 에쿠스의 후속 모델 'EQ900'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네시스에 자율주행 시스템 첫 탑재

현대차 'EQ900' 내달 출시
고속도로 주행지원 서비스 탑재
2020년까지 양산차 적용 목표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내달 출시하는 신차에 '장거리 자율 주행 기술'을 국내 최초로 탑재한다. 국내에서도 자율 주행차 시대가 본격 열리는 셈이다.

그동안 현대차가 선보인 자율 주행 기술이 단거리 짧은 구간 위주였다면 이제는 고속도로 위에서도 본격적으로 달릴 수 있는 자율 주행 기술이 적용되는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국내 최초로 올해 12월에 출시되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신차 'EQ900'(신형 에쿠스)에 장거리 자율 주행 기술인 '고속도로 주행지원 시스템'(HDA)을 탑재할 예정이다.

HDA는 운전자가 차선이나 경로를 변경하지 않는 한 운전대와 가속페달을 조작하지 않고도 앞차와의 간격을 자동으로 유지하면서 차량 스스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이다. 이 기술은 완전 자율 주행 기술로 가기 위한 첫 단계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연말을 기점으로 장거리 자율주행 시대가 개막되는 셈"이라면서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의 첨단 기술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가 이번에 자율 주행 기술을 적용하는 제네시스 EQ900은 신형 에쿠스의 다른 이름이다. 현대차는 신형 에쿠스에 지난 16년간 사용했던 이름 '에쿠스'를 과감히 떼내고,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로 통합해 '제네시스 EQ 900'으로 새 이름을 달았다. EQ는 기존 에쿠스의 위상과 유산을 존중한다는 의미고, 900은 제네시스 브랜드 최상위 라인업과 완성을 의미한다.

한편 자율주행차는 현대차뿐 아니라 나머지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2020년까지 관련 기술을 상용화해 양산차에 적용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7일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근린공원에서 실시된'2015 사랑나눔 강서김장문화제'에 참가한 아시아나항공 캐빈승무원들이 준비한 재료를 이용해 김장을 담그고 있다.

아시아나 '강서김장문화제' 참여

아시아나항공이 7일 강서구 방화동 근린공원에서 실시된 '2015 사랑나눔 강서김장문화제'에 참여해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강서구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아시아나항공 임직원을 포함해 직능단체, 동 주민센터, 복지관, 학교, 자원봉사단체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000여명이 참가해 총 3만여 포기, 75톤 규모의 김장을 담갔다.

이는 그간 강서구에서 실시했던 '김장나눔 행사' 중 최대 규모로 이날 마련된 김장김치는 저소득 가정 7500가구에 전달됐다.

행사에 참가한 아시아나항공 정영현(26세, 남) 사원은 "강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웃간 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태어나 처음으로 김치를 직접 담가 보았는데, 이를 받아보시는 분께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성운 기자

삼성 스마트폰 OS '타이젠', 블랙베리 제치고 세계 4위

車·가전에도 쓴다… '탈 안드로이드' 가속도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

가전·인포테인먼트 적용 등 IoT 플랫폼 입지 확대 주력



타이젠을 탑재한 스마트폰 'Z3'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개발한 모바일기기용 운영체제(OS) '타이젠'이 출시 1년 만에 블랙베리·파이어폭스를 제치고 시장점유율 4위에 올랐다.

삼성전자가 타이젠OS를 모바일기기와 웨어러블 기기 등에 확대 적용하며 타이젠 생태계 육성에 나선 결과다. 삼성전자는 냉장고와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에 탑재해 사물인터넷(IoT) 시대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8일 미국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타이젠 스마트폰은 올 3·4분기 동안 100만대 가량 팔리면서 80만대에 그친 블랙베리폰을 밀어내고 4위에 올랐다. OS 시장점유율로 보면 타이젠은 0.3%로 블랙베리(0.2%)보다 0.1%포인트 앞섰다.

타이젠이 스마트폰 OS 점유율에서 4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타이젠 기반 첫 스마트폰인 'Z1'이 인도 시장에서 100만대 이상 팔려나간 데다, 'Z3'까지 새로 출시되며 생태계가 확산하고 있는 점이 순위 상승 요인으로 꼽혔다. 특히 인도시장에서는 약 20%의 점유율을 보이면서 안드로이드에 이어 2위까지 이름을 올렸다.

1위는 구글 안드로이드, 2위는 애플의 iOS, 3위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차지했다.

SA 측은 "삼성의 타이젠 스마트폰은 올 3·4분기 인도에서 70만대, 방글라데시에서 20만대 가량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인도를 비롯한 신흥시장에서 타이젠폰 인지도와 판매망이 굳건해짐에 따라 앞으로 판매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타이젠을 탑재한 제품을 늘리며 타이젠 생태계 확대에 주력해 왔다. 스마트TV와 프리미엄 가전제품에 이어 스마트워치 '기어S2'와 스마트폰 'Z3'에도 타이젠을 탑재하며 타이젠의 입지를 넓혀왔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외에 IoT 시대를 맞아 가전과 자동차 등에서도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인텔과 일본 통신업체 NTT도코모 등과 협력해 타이젠을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인포테인먼트는 주행정보 안내와 음악재생 기능 등을 탑재해 자동차를 스마트기기처럼 활용하거나 자동차와 모바일 기기를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또 SUHD TV와 냉장고에도 타이젠을 탑재해 선보이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이외에 타이젠 생태계 확대를 위해 자체 오픈소스 컨퍼런스인 '소스콘'을 개최하고 세계에서 타이젠 개발자회의를 여는 등 타이젠의 개발자 기반을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안드로이드 의존도가 조금이라도 줄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다른 OS와 비교하면 아직 보완할 점이 많다"며 "그러나 타이젠은 현재가 아닌 5~10년 뒤를 내다보는 SW인 만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사물인터넷 가입자 400만명 돌파

미래부 무선통신 통계 웨어러블은 4배 급증

국내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가입자가 4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집계한 무선통신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9월 기준 사물인터넷 가입자는 408만4870명으로 집계됐다.

사물인터넷을 다시 세분화하면 스마트워치로 대표되는 웨어러블(착용형) 기기 가입자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올해 1월 7만7576명에 불과했던 웨어러블 기기 가입자는 9월 29만3644명으로 3.79배가 됐다. 스마트워치가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전자의 신작 스마트워치 '기어S2'가 10월 초 출시된 후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10월 이후 웨어러블 기기 가입자의 증가세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태블릿PC 가입자는 57만773명에서 56만3686명으로 소폭이지만 감소했다. 음식 배달원이 쓰는 휴대형 카드결제기 등에 주로 쓰이는 무선결제 가입자도 60만5500명에서 58만3508명으로 소폭 줄었다.

이동통신 가입자를 기술 방식별로 구분했을 때 2G와 3G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는 줄어든 반면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는 1월 3676만3841명에서 9월 4031만1761명으로 증가했다. 이로써 LTE 가입자는 처음으로 4000만명을 넘겼다. 스마트폰 가입자의 증가와 함께 LTE 가입자도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가입자는 1월 4083만2911명에서 9월 4259만9093명으로 4.3% 증가했지만 음성통화 기능 중심의 피처폰 가입자는 같은 기간 1212만2320명에서 1072만2263명으로 11.5% 감소했다.

/정문경 기자



삼성전자 '기어S2', 두바이 시작으로 중동 공략 삼성전자가 두바이를 시작으로 중동 지역에 '기어 S2'를 출시하며 기어 S2의 글로벌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두바이에서 제품 출시를 맞아 오는 21일까지 갤럭시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기어 S2의 원형 디자인과 휠 사용자환경(UX)에 맞춘 원형의 체험존에서 현지 소비자들이 기어 S2의 디자인과 다양한 활용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두바이몰에 마련된 삼성 갤럭시 스튜디오에서 방문객들이 기어 S2를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

LGU+, 홈 IoT서비스 가입 5만명 넘어

일평균 가입자 1000명 'U+도어락' 이달 출시

LG유플러스는 자사의 가정용 사물인터넷(IoT) 서비스가 출시된지 4개월 만에 가입자가 약 5만1000명을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일평균 가입자가 지난달 500명에서 최근 1000명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전기 플러그와 스위치, 창문 열림감지 센서, 에너지 미터, 가스락 등의 신청률이 높았다.

LG유플러스는 삼성SDS와 손잡고 스마트폰으로 현관문을 제어하는 'U+ 도어락'을 이달 중 출시한다. 단말기 가격은 41만원이고 요금은 월 1100원이다. 도어락을 구입하면 LG유플러스의 가정용 IoT 제품 중 가장 인기가 높은 플러그를 무료로 제공한다. /정문경 기자

삼성 스마트폰, 북미 제외 세계시장 석권

글로벌 5개 지역 판매 1위 북미는 애플-삼성-LG 순

삼성전자가 올해 3·4분기 북미를 제외한 글로벌 5개 지역에서 스마트폰 판매량 정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3·4분기 서유럽,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동유럽, 중동·아프리카 등 글로벌 5개 지역에서 스마트폰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하반기 프리미엄 모델인 '갤럭시노트5'는 물론 '갤럭시A8', '갤럭시 J5' 등 중저가 모델까지 전 세계 지역에서 골고루 판매고를 올린 영향으로 보인다.

SA는 삼성전자가 올 3·4분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총 8380만대의 스마트폰을 팔았다는 조사결과를 내놨으나 1위를 거둔 지역을 한꺼번에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삼성전자의 3·4분기 지역별 스마트폰 판매량을 보면 서유럽 1530만대, 아시아태평양 2320만대, 중남미 1180만대, 동유럽 690만대, 중동·아프리카 1610만대였다. 특히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지난 2·4분기보다 판매량이 300만대나 늘어나면서 판매 점유율(52.1%)이 절반을 넘었다. 이 지역에서 팔린 스마트폰 2대 중 1대는 삼성전자 제품였던 셈이다.

SA는 "삼성전자가 작년 1·4분기 이후 처음으로 의미 있는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세에 들어갔다"면서 "이는 중동·아프리카를 비롯해 중남미와 동유럽 등 신흥시장에서의 활약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안방인 북미 지역에서는 이번에도 1위를 탈환하는 데 실패했다. 삼성전자의 3·4분기 북미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26%로 애플(33%)에 7%포인트 뒤졌다. 판매량은 1050만대로 집계됐다.

유독 북미 시장에서 강한 면모를 보인 LG전자는 지난 2·4분기에 이어 올 3·4분기에도 판매량 3위에 오르는 저력을 보였다. 총 630만대(점유율 15.6%)를 팔아 애플과 삼성전자의 뒤를 이었다.

3·4분기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3, 5위에 오른 중국의 화웨이와 샤오미는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성과가 눈에 띄었다. 양사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각각 10.4%, 10.5%로 삼성전자(11.7%)와 애플(11.1%)을 바짝 따라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문경 기자 hm0108@

BNK금융그룹 DGB금융그룹 JB금융지주

3대 지방은행, 계좌이동제 역공… 틈새 공략

BNK·DGB·JB금융
충성 고객 잡기 위해 주거래 우대상품 출시 등 각종 자구책 마련 분주

3대 지방 금융지주가 계좌이동제 시행에 맞춰 충성 고객 잡기에 골몰하는 등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지방은행은 주거래 고객 우대 상품을 출시하고 비은행부문 사업 다각화를 검토하는 등 대형은행에 밀리지 않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8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계좌이동제 서비스가 시작한 지난달 30일부터 2영업일 간 계좌이동 사이트인 '페이인포' 접속 건수는 21만3000여건이다. 이 가운데 자동이체 변경은 3만4500여건, 자동이체 해지 건수는 7만여 건이다.

현재 계좌이동제는 이동통신·보험·카드 등 3개 업종의 자동납부를 대상으로 한 출금계좌 변경 서비스만 가능하다. 내년 2월부터는 은행 창구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기존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자동송금 포함) 항목을 온·오프라인에서 끌어올 수 있어 본격적인 '대이동'이 전망되고 있다.

◆ BNK·DGB·JB금융, 주거래 우대 상품 출시

계좌이동제가 시행된 일주일 동안 '고객 이동'을 몸소 확인한 은행들은 고객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객 충성도가 높은 지방은행도 주거래 우대 상품을 출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선 BNK금융그룹의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고객의 생애주기별로 발생 가능한 입학, 졸업, 결혼 등 이벤트를 선정해 연간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평생통장'을 출시했다.

예·적금뿐만 아니라 대출상품에서도 계좌이동제와 연계한 상품도 속속 내놓고 있다.

경남은행은 평생통장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직장인 플러스 알파론'과 '소호 파트너 론' 등의 상품 이용 시 연간 이자납입 금액의 1%를 3년간 제공하는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자동이체대출'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마이너스통장 형태로 운용되며 대출한도 내에서 사용과 상환이 자유롭다.

JB금융그룹의 광주은행은 자동이체, 신용카드 이용 시 다양한 수수료면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KJB 주거래통장'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주거래 통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각종 수수료 면제 및 환율우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DGB대구은행은 계좌이동제에 맞춘 특화상품 DGB주거래우대통장·예금·적금을 출시했다. DGB주거래 우대상품은 주거래 계좌를 지정하면 다른 통장과 연계된 각종 자동이체 납부 계좌를 한꺼번에 주거래 통장으로 이동하도록 간소화한 계좌이동제에 특화된 상품이다. 개인사업자, 주부, 은퇴자 등 다양한 고객이 평생 거래하면서 금리 우대, 우대 서비스,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비은행부문 사업 강화·특화 상품으로 '공략'

이들 3대 지방 금융지주는 나란히 올해 3·4분기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핀테크(Fin Tech, 금융+기술) 발달에 따른 틈새공략, 사업 다각화 등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BNK금융그룹은 지난 6일 3·4분기(누적) 순이익이 4675억원으로 전년동기(1502억원) 대비 47.3% 늘었다고 공시했다.

BNK금융그룹의 실적 개선은 지난해 10월 경남은행 편입으로 인한 이익 증가 및 비은행 계열사의 이익 성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일수 전략재무본부장은 "BNK금융그룹은 지난 7월 말 BNK자산운용(구 GS자산운용) 자회사 편입으로 비은행부문 사업 다각화를 통해 균형적인 수익 창출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올해와 내년에는 수익성과 건전성 중심의 내실경영에 주력해 글로벌 초우량 지역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JB금융그룹의 광주은행은 여행을 테마로 한 '해피라이프 여행스케치 적금'과 '해피라이프 여행스케치 론' 등 테마상품을 연이어 출시했다. '해피라이프 여행스케치 적금'은 하나투어 지정대리점에서 여행상품 이용 시 결제금액의 3%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 여행객을 대상으로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출시 45일 만에 가입고객 1만 명을 돌파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은행은 전북은행과 함께 이 같은 테마상품을 지속 개발해 틈새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DGB금융그룹은 계열사인 DGB캐피탈이 대구은행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이렉트 오토론' 등 핀테크를 활용한 상품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DGB대구은행을 주거래로 이용하며 DGB대구은행 BC카드를 소지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핀테크와 비대면채널 활성화의 열풍에 발 맞춰 DGB캐피탈 홈페이지에 접속해 24시간 온라인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지방은행은 지역 고객을 주요 고객층으로 지역 내에서는 접근성과 편의성이 좋다는 장점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며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과 계좌이동제 등 금융 혁신에 따라 그 동안의 영업 전략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KEB하나은행 '서울 빛초롱 축제' 공식 후원 KEB하나은행은 지난 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서울 청계천에서 열리는 '2015 서울빛초롱 축제'에 공식 후원사로 참가했다고 8일 밝혔다. 청계천 '빛터널'을 관람객이 지나고 있다. /KEB하나은행

자영업 대출 급증… 당국, 집중 점검

금감원-한은
5대 은행 현황·실태 조사

금융당국은 올해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급증함에 따라 시중은행을 상대로 대출현황 점검을 실시했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지난달 신한, 국민, KEB하나, 우리, 기업 등 5개 주요은행의 자영업자 대출과 관련한 대출현황과 여신심사 실태 등을 공동 점검했다. 다만 감독당국은 이번 자영업자 대출 검사를 은행권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 2010년 5조9000억원에서 2011년 13조원으로 급증했고 2012년 15조원, 2013년 17조1000억원, 지난해 18조8000억원으로 꾸준히 늘어 올해 2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금은 지난 9월까지 23조3000억원이 증가해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지난 2009년 이래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전체 기업대출 증가액 44조4000억원의 절반을 넘어섰다.

/김보배 기자

안갯길 교통사고 10~12월 집중

삼성화재
"안개낀 날 사고 치사율 맑은 날의 4.5배 달해"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이 4·4분기(10~12월)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안개발생 시 교통사고 치사율은 맑은 날의 4.5배에 달했다.

삼성화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안개구간 주행속도 및 교통사고 분석 결과를 내놨다.

연구소의 이번 분석은 경찰 집계 교통사고(최근 3년) 및 인천공항고속도로 안개발생일 차량 주행속도 자료를 근거로 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안개길 대형교통사고는 감속운행 미준수로 인해 차량 간 속도편차가 확대돼 교통흐름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12월은 전체 안개 교통사고의 51.4%를 차지해 가장 위험성이 높은 시기로 집계됐다.

일교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안개 특성상 가을철에 안개에 의한 교통사고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

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인 치사율은 안개 낀 날 9.9명으로 맑은 날 2.2명 대비 4.5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중 안개 발생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건수 중 안개 낀 날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나 치사율은 높았다.

또 안개 발생 시 도로 제한속도 및 차량 주행속도가 높은 도로를 중심으로 교통사고 비중이 높아졌다.

도로에서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가 100m 이하가 되면 차량이 감속하기 시작해 평균속도의 변화가 일어나지만 감속 폭은 최대 10km/h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개구간에서는 운전자의 시야가 제약되기 때문에 교통흐름이 불안정해지고, 차량 간 속도편차가 증가하게 된다. 맑은 날보다 후방추돌, 차량단독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사고 발생 시 다중추돌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이정필 기자 roman@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김용환 NH금융 회장
"빠른 현장 지원 부탁"

"일선 현장지원을 위해 본부조직이 좀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6일 서울 서대문 농협은행 본관에서 열린 본부 부장·팀장급 직원 300여명과의 '농협금융 현황과 발전방향' 간담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회장은 그동안 전국 영업점을 돌며 현장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한 것을 바탕으로, 본부조직의 빠른 현장 지원을 위해 스피드한 대처를 당부했다.

평소 직원들과 화상통화를 자주 하는 김 회장은 "하루하루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일선 영업점을 본부 조직이 스피드있게 지원해야 하며, 현장의 제도개선 요청사항을 긍정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며 "형식과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문제에 더욱 집중하며 보다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본부직원들이 적극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보배 기자

위기의 증권업계… M&A로 산업자본 수혈을

증권업계가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 주식도 해외 직구 시대(해외 증권투자)가 열리고,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영업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것. 증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직원들의 등을 떠밀거나 지점을 축소하는 일이다. 전문가들은 증권업계가 또 다시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인수·합병(M&A)에 그 해법이 있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선 기존 금융자본의 참여로는 한계가 있어 산업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증권업, M&A에 길을 묻다 ⑤ 성장통 겪는 증권가 '성장' 해법은?

34개 증권사 CEO들
"국내 금융당국 규제 심해
경쟁력, 美·英의 60%수준"

전문가들
"기업·투자로의 시장분할
글로벌 대형사 출현 이끌어야"

◆ 성숙한 자본시장 되려면

국내 증권 산업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일까. 국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은 한국 증권산업의 경쟁력이 선진국의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해 'KDI·금융투자협회 공동 심포지엄'에서 "국내 34개 증권사 CEO를 대상으로 국내 증권산업의 경쟁력을 설문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59점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미국·영국 등 금융 선진국의 60%에 불과한 수준으로 향후 경쟁력 제고가 심각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이 문제일까.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4.5%)이 국내 증권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이유로 금융당국 규제를 꼽았다. 또 '국내시장 중심의 단순한 수익구조(39.4%)'와 '증권회사의 영세성(6.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남의 탓만 해야 할까.

자본시장이 성숙한 나라 일수록 생태계가 잘 짜여져 있다. 대형사는 주로 자기자본투자(PI)나 M&A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글로벌 투자은행(IB)으로 도약한다. 중소형사는 국내시장 중심의 특화된 시장에서 활동한다.

밥그릇 싸움으로 일관하는 국내 현실과 딴 판이다.

수치가 말해 준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증권사 자산은 366조 3000억원, 자기자본은 43조6000억원으로 지난 2010년 말에 비해 각각 83%, 16% 증가했다.

하지만 위탁매매에 치중하는 비슷한 사업구조, 정형화된 업무형태 등이 원인이 돼 질적으로는 발전이 더딘 상황이다. 국내 증권사들의 증권매매(위탁+자기) 비중은 62.2%에 달한다. 반면 IB 수익 비중은 8.1%에 불과하다. 골드만삭스(69.4%), 모건스탠리(40.1%), UBS(46.8%) 등 해외 IB의 수익비중은 40%를 훌쩍 넘는다.

변화를 두려워 한 탓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손상호 연구원은 "자본시장의 구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투자업은 구조적 조정 기회를 놓치고 차별화도 실패했다"면서 "전문화와 특화 전략의 부재로 시장을 신도하는 리더나 특화 기관의 존재가 없다"고 지적했다.

◆ 산업자본 등 M&A참여 유도해야

"일본의 노무라 증권은 90년대부터 장기복합 불황을 비켜가지 못했다. 노무라증권은 1991년부터 97년까지 해외자본의 해외투자 중개를 시작했다. 리스크 높은 투자 사업에도 뛰어들며 IB업무를 확대해 나갔다. M&A, 인프라 구축 등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99년 지주회사 제체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마련했다.

2000년 들어서는 자산관리(WM) 리테일 영업 중심으로 전사 체제를 개편했다. 지방은행과 채널을 공유하는 등 은행과의 경계도 허물었다. 동시에 2008년 금융위기로 쓰러진 리먼브라더스를 인수, 유럽과 아시아지역의 IB사업을 강화했다. 그 결과 노무라증권은 국내 리테일 1위 증권사로 떠오르게 됐으며 '데커 펀드, 커버드콜 펀드' 등 히트 상품을 출시하며 시장에서 대박을 냈다.

전문가들은 위기 탈출의 한 방편으로 M&A를 주문한다.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다만 M&A가 금융시장내에서 그들만의 리그가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시장에서는 인위적인 구조조정보다는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서 시장 분할이 이뤄질 때 성공적인 M&A를 이끌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또 기존 금융자본의 참여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산업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자봉 연구위원은 "국내 증권산업의 M&A는 원인은 있지만 결과는 없는 매우 당혹스럽고 퍼즐에 가까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정부의 정책도 증권사간 M&A를 유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임원은 "그동안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M&A는 대부분 구조조정 과정이나 특수요인에 의한 것이었는데 기업이나 투자자 측면에서 시장분할이 이뤄져야 금융투자회사의 시장분할, 대형사의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경쟁력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삼성증권 '청소년 경제증권 교실' 10주년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중구 수하동 페럼타워 강당에서 '청소년 경제증권 교실' 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다. 청소년 경제증권 교실은 증권사의 전문성을 살려 1년간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수준별 경제교육을 제공한다. '아이들과미래' 송자 이사장(뒷줄 왼쪽에서 네번째)과 삼성증권 윤용암 사장(다섯번째)이 우수자원봉사자와 거점센터장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포즈를 취했다. /삼성증권

'호재'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연말까지 '턴어라운드' 기대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빠르면 4·4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전망이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10만9500원에 마감했다. 3·4분기 실적 부진에도 10만원대 주가를 지켜 냈다.

증권가는 4·4분기부터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갤러리아 타임월드백화점은 그동안 진행중이던 상층부(9~12층) 리뉴얼을 마무리하고 홈리빙전문관, 고메이월드(전문 레스토랑 업체가 입점한 전문 식당가) 등을 9월 중순~10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오픈했다.

한국투자증권 최민하 연구원은 "4·4분기부터 리뉴얼 효과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돼 4·4분기 백화점 부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1%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백화점 부문 매출은 내년 8.1% 증가한 1383억원으로 예상된다. 제주면세점 매출도 4분기부터 외형 확대 및 이익 개선 추세가 이어지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627억원, 23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김문호 기자

'투자금 블랙홀'된 KB자산운용

채권혼합펀드 설정액 몰려
고수익률에 투자자들 관심

KB자산운용이 채권혼합형펀드시장에서 블랙홀처럼 투자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8일 금융정보업체인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연초 이후 설정액 증가 상위 5개 펀드 중에서 4개가 KB자산운용의 펀드였다.

KB가치배당40펀드에 연초 이후 무려 1조3359억원의 돈이 몰렸다. KB퇴직연금배당40과 KB밸류포커스30펀드에도 각각 6791억원, 3171억원의 자금이 들어왔다. KB가치배당20펀드에는 3122억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됐다.

돈이 몰리는 주된 이유는 높은 수익률이었다.

장기트랙레코드를 보유한 KB퇴직연금배당40펀드의 경우 3년 수익률과 5년 수익률이 각각 26.7%, 55.3%다. 지난 2006년 설정일 이후 수익률은 140.4%에 달한다.

이들 펀드는 모두 동일한 매니저가 운용하고 있어 스타일도 유사하다.

채권혼합형펀드는 자산의 대부분을 국공채에 투자하고 20~40% 내에서 가치배당주 투자를 통해 예금 금리 이상의 수익 추구를 추구한다.

NH투자증권 문수현 연구원은 "올해 국내 채권혼합형펀드의 인기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예금금리 +알파(α)의 수익을 원하는 은행 고객의 투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내년 이후에는 채권금리의 추세 변화 가능성이있어 주식에서 차별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펀드 수익률 둔화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연초 이후 7.2%의 수익률을 기록한 메리츠코리아 채권혼합형펀드는 연초 이후 5762억원이 늘었다. 채권혼합형 펀드 중 세번째로 높은 설정액 증가세다. 1조1000억원의 투자자금을 끌어 모은 메리츠코리아 주식형펀드에 버금가는 인기다.

/김문호 기자

<국내 채권혼합형펀드 연초 이후 설정액 증가 상위 펀드> (단위:억원, %)

펀드	설정액	연초이후 증감액	연초이후	3년
KB가치배당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운용)	14,005	13,359	5.7	–
KB퇴직연금배당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17,786	6,791	5.7	26.7
메리츠코리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6,408	5,762	7.2	16.7
KB밸류포커스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운용)	3,732	3,171	5.8	–
KB가치배당2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운용)	3,122	3,122	–	–
KTB공모주분리과세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운용)	2,732	2,732	–	–
NH-CA Allset모아모아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2,543	2,543	4.1	–
하이공조무&배당주1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2,865	2,542	3.7	–
하이실적포커스30증권투자신탁 1(채권혼합)	3,058	2,277	2.8	20.9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30증권투자신탁 1(채권혼합)	2,302	1,985	8.2	21.3

드레스룸에 ㄷ자형 주방… 주부들 호평

| 르 포 | 삼송 원흥역 푸르지오 견본주택 가보니…

채광·통풍 '성능 甲' 판상형 설계 눈길
자체 개발한 '하이브리드 쿡탑II' 탑재



삼송 원흥 푸르지오 견본주택 방문객들이 입장 전 대기하고 있다. /박상길 기자

지난 6일 오후 2시.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 원흥역 7번 출구에 위치한 '삼송 원흥역 푸르지오' 견본주택. 대우건설이 고양 삼송일대에 최초로 공급하는 브랜드여서 수요층의 관심은 뜨거웠다. 주말 3일 동안에만 2만3000여명이 다녀갔다.

견본주택 밖은 방문객이 세 줄로 서 있었다. 견본주택 안은 1층에서 모형을 둘러보거나 상담을 받는 방문객으로 만원이었다. 2층 전시공간도 상황은 비슷했다.전용면적 84㎡A·91㎡B형을 둘러보는 방문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방문객은 1층에서 단지 모형을 관람한 뒤 2층 84㎡A·91㎡B를 둘러보고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청약 등 입주 관련 궁금증을 해결하고 있었다.

방문객을 따라 1층 모형을 둘러보고 2층으로 올라가 봤다. 2층 공간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주상복합임에도 채광과 통풍이 잘되는 판상형으로 설계된 것이었다. 또한 각 공간마다 활용성을 높인 드레스룸과 'ㄷ'자형 부엌공간도 눈에 띄었다.

전용 84㎡ A·B 중에서는 84㎡A형이 드레스룸 등 수납 공간이 넓었다. 드레스룸은 채광과 통풍이 잘 될 수 있도록 창문이 2개나 설치돼 있었다. 주방 공간에서는 대우건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하이브리드 쿡탑IIS도 눈에 들어왔다. 가스쿡탑과 전기쿡탑을 결합한 모델이다.

전용 91㎡B는 방을 분리하거나 통합 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다. 중대형 못지않은 수납공간도 특징이다. 수납장 없이 침실로 활용하거나 펜트리와 알파룸을 결합한 가족 키친, 중간에 문을 달아 라이프스타일별로 놀이방 또는 서재로 사용할 수 있게 설계했다.

2층을 둘러보고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상담석으로 향했다. 주 수요층은 일산에서 내려오는 사람과 은평구 쪽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새집이지만 첨단 시설에 따른 관리비가 적은 점, 주상복합임에도 다양한 평면 설계가 적용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상담 과정에서는 청약 금액과 일정,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금융혜택은 무엇이 있는지부터 버스정류장은 가까운지, 인테리어는 어떻게 꾸며야 하는지, 갈아타기 수요 등은 얼마나 되는지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30명의 대기 순서를 기다려 공개가 안된 전용 72A·B 상담을 받아봤다. 72A·B 중에서는 세대수가 같은 두 평형에서는 72B가 개방감이 좋고 서비스면적(드레스룸 등 수납공간)도 2평 넘게 넓었다. 72B의 서비스면적은 8.84㎡, 72A는 6.67㎡였다. 대우건설은 이 평형대의 청약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인근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원흥동과 도내동 일대인 원흥지구는 인근 일산 화정이나 삼송지구보다 덜 유명하지만 최근 서울과의 접근성이 부각되면서 관심이 높다.

차로 20분 거리인 상암DMC에 기업들이 대거 입주하면서 출퇴근이 쉬운 동시에 가격도 저렴한 원흥지구에 협력업체 종사자들이 다수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원흥지구 초입에 원흥~강매 간 도로가 지난해 말 개통돼 자유로까지 차로 5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마포와 여의도 등까지도 30분 이내에 갈 수 있다. 이외에도 제2자유로와 외곽순환도로, 1번 국도, 강변북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통해 서울과의 진출입이 수월하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온 김모씨(36세) 부부는 "주상복합아파트인데 평면이 넓은 점이 인상 깊었고 지하철이랑 가깝다는 점도 좋았다"며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서 학군 수요만 좋아지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은평구 다세대주택에 사는 결혼 6년차 김모씨(35) 부부는 "은평에서 견본주택을 보러 처음 와봤는데, 은평구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다양한 평면과 역세권인 점이 마음에 들었다"며 "은평구는 재건축 수요로 빌라만 계속 지어지고 있어 이사를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11월 둘째 주 분양캘린더 (11월 9~15일)

시기	시/도	단지명	총가구수	분양(임대)	전용면(㎡)
청약					
9일	광주	광주 한아름골드 10년 공공임대	76	76	59
10일	경남	거제 일성유수안	267	267	65~84
	전남	순천 조례 대광로제비앙	490	490	74~95
	서울	SH공사 국민임대	764	764	39~59
	서울	힐스테이트 에코 마곡역	475	475	19~42
	서울	신정4보금자리지구(국민임대)	220	220	39
	전남	순천 조례동 대광로제비앙 봉화산	490	490	74~95
11일	경기	삼송 원흥역 푸르지오	450	450	72~91
	경기	자이더익스프레스4차	684	684	59~113
	경기	자이더익스프레스4차	775	775	59~113
	인천	인천 논현 유승한내들 와이드오션	376	376	56
	강원	동해 북삼 하우스디	238	238	59~84
	강원	원주 단구동 한신휴플러스	724	724	59~84
	충북	충주시티자이	1596	1596	59~84
12일	서울	신정4보금자리지구(국민임대)	220	220	39
	경북	구미 문성2지구 서희스타힐스	977	91	59~123
	충남	내포신도시 1차 EG the1	892	892	72~84
13일	경기	시흥배곧 한라비발디 캠퍼스 3차	1304	1304	84
M/H오픈					
13일	서울	힐스테이트 에코 송파(오)	464	464	21~34
	서울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	416	93	49~170
	서울	가산대명벨리온(오)	585	585	16~31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	9,510	1,558	39~130
	경기	용인역북 명지대역 동원로얄듀크	842	842	59~84
	경기	동천자이	1437	1437	74~100
	경기	운양역 한신휴 더테라스 1차	924	416	59~84
	경기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7.0	710	710	73~86
	경기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7.0(오)	280	280	56
	경기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8.0	671	671	73~86
	경기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8.0(오)	280	280	56
	경기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9.0	689	689	93~104

울산 대현 더샵 1180가구 外

11월 둘째 주(9~15일) 분양시장에는 1만가구가 넘는 물량이 공급된다. 견본주택 개관도 많다.

8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에는 전국 13곳에서 1만1018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일반에 분양되는 물량은 1만132가구다. 이는 지난주(2~8일) 공급된 2만3830가구보다 57.48% 감소한 수치다. 이번 주 공급 물량 중에는 포스코건설이 울산에서 1180가구 대규모 단지로 조성하는 대현 더샵이 주목할 만 하다.

포스코건설은 11월 중 울산광역시 남구 대현동 일대에 '대현 더샵'을 분양할 계획이다.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13~32층 11개동, 전용면적 68~121㎡ 1180가구다.

전용면적별로는 ▲68㎡(A·B·C) 335가구 ▲84㎡(A·B·C·D) 812가구 ▲121㎡(A·B·C·D) 33가구 등 중소형이 전체의 97%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총 11개 주택형으로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단지 인근에 울산 중심을 통과하는 번영로와 신선로, 수암로 등이 있어 중심 상업지역으로 접근이 수월하고, 100m 거리에 8개 노선이 지나는 버스정류장도 있어 울산 각지로 이동하기 쉽다.

입주는 2018년 8월 예정이며, 견본주택은 11월 중 울산 남구 번영로 82(달동 1297-1)에 오픈할 예정이다. /박상길 기자

충주시티자이 등 견본주택 구름인파

GS건설
나흘간 5만5000명 방문

GS건설은 지난 5일 오픈한 평택 자이더익스프레스2차와 충주시티자이 등 견본주택 2곳에 주말까지 나흘간 약 5만 5000여명이 방문했다고 8일 밝혔다.

평택자이더익스프레스 2차 견본주택에는 3만여 명, 충주시티자이는 약 2만5000여명이 다녀갔다.

청약은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1순위, 12, 13일 2순위 청약이 실시된다. 당첨자 발표는 4블록 18일, 5블록 19일 예정이며, 당첨자 계약은 24일~26일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경기 평택시 비전동 1102-2번지에 있다. 입주는 2018년 9월 예정이다.

충주시티자이는 전 가구 4베이 설계를 적용했다. 단지 3면이 녹지로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청약은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1순위, 12~13일 2순위가 진행되며 19일 당첨자 발표 후 24~26일 당첨자 계약이 실시된다. 견본주택은 충북 충주시 연수동 1360번지에 마련됐다. 입주는 오는 2017년 11월 예정이다. /박상길 기자

임대용 빌딩 급매

북촌 한옥마을 근린상가빌딩 外

▲서울 북촌 한옥마을 인근에 있는 대지 220㎡ 연면적 300㎡의 근린상가빌딩이 매물로 나왔다. 현재 보증금은 3억원이며, 급매가는 42억원, 시세 60억원 이상이다. 월 1500만원의 임대수익이 발생한다. 문의는 010-5273-3985로 하면 된다.

▲강남역 출구 대로변 코너 건물이 15억4000만원에 매물로 나왔다. 분양면적 127㎡, 전용면적 57㎡의 상가다. 현재 보증금은 2억원이며 유명 병원이 성업 중에 있어 월 700만원의 임대수익이 발생한다. 문의는 010-5273-3985로 하면 된다.


북촌 근린상가 전경.

/박상길 기자

레고 맞추듯? '트랜스포머형 가구' 인기

가족늘면 '붙이는 매트리스' 드레스룸은 수납장 변신

자녀계획·이사에 따라 조합·분리·재구성 가능



매트리스 두개를 이어붙일 수 있는 팔로모의 '베네치아' 프레임. /팔로모

실용성을 중시하는 예비 신혼 부부들이 늘어나면서 혼수가구 트렌드도 바뀌고 있다. 신혼생활 이후 임신, 출산, 육아 등 변화하는 생활 패턴에 따라 가구를 매번 구입하는 것이 힘들어지면서 바뀌는 공간에 맞게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가구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

8일 가구업계에 따르면 자녀계획이 있거나 전세난에 이사가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부들을 공략하기 위해 조합과 분리, 재구성이 가능한 트랜스포머형 가구의 출시가 늘고 있다.

일대일 맞춤형 전문 이탈리아 침대 브랜드 팔로모는 매트리스 두 개를 붙일 수 있는 '베네치아' 프레임을 선보이고 있다. 사방에서 매트리스를 고정시켜주는 구조로 매트리스 사이가 벌어지지 않아 넓게 사용할 수 있다. 신혼 때는 퀸 사이즈 침대로 사용하다가 자녀가 태어나면 매트리스를 하나 더 붙여 온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다.

베네치아 프레임은 높이가 낮고 모서리 부분이 뾰족하지 않아 아이들이 쉽게 오르내릴 수 있다. 또한 아이들이 뛰어다니다가 침대에 부딪히는 경우를 대비해 프레임에 고밀도 폼소재를 사용해 쿠션감을 더했다. 특수코팅된 인조합성가죽은 스크레치에 강해 아이들의 호기심으로 인한 제품의 손상과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다. 붙였던 침대를 다시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성장했을 경우에는 두 개의 침대로 사용할 수 있다.

현대리바트는 모듈형 드레스룸인 '리바트 나무플러스'를 선보이고 있다. 하나의 측판으로 연결된 드레스룸과 달리 모든 모듈이 별도의 단독 제품으로 구성돼 분리와 조립이 쉽다. 수납 물품을 고려해 필요한 모듈만 구매할 수 있어 맞춤형 드레스룸을 완성할 수 있는 제품이다. 신혼 때는 부부를 위한 드레스룸으로 사용하다가 자녀 출산 후에는 제품을 분리해 아이방 수납장으로 바꿀 수 있다. 또 이사 후에도 새로운 공간에 맞춰 모듈을 재배열할 수 있다.

에몬스의 '리베로 소파'는 다양한 공간 연출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적합하다. 한 소파에 스툴형 구성과 좌우 가변형 카우치 구성을 접목해 이사로 집안 구조가 바뀌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유현희 기자 yhh1209@metroseoul.co.kr



홈플러스 영국전통 유아동 침대 룰웍스 할인 판매 홈플러스가 55년 전통 영국 유아동 전문브랜드 마더케어가 DIY 형 유아동 침대 '룰웍스 침대'를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홈플러스가 신생아부터 5세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유아동침대 룰웍스침대를 이달말까지 할인판매한다. 마더케어 홈플러스 인천송도점에서 모델들이 룰웍스 침대를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

韓선 '빼빼로데이' 中선 '솔로데이'

'싱글 유커의 날' 국내 온라인몰도 축하이벤트

롯데백화점
10~12일 온라인몰 할인행사

판다코리아닷컴
9~12일 빼빼로증정·화장품 할인

"싱글 유커를 잡아라."

중국 최대 쇼핑 시즌으로 불리는 '광군제'(光棍節), 이른바 '솔로데이(11월 11일)'를 앞두고 국내 온라인 쇼핑몰들이 싱글 유커 잡기에 한창이다. 11월 11일은 국내에서는 빼빼로데이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1이 4개 겹치는 날로 솔로를 위한 날이다.

롯데백화점은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롯데닷컴·롯데아이몰·엘롯데 등 온라인몰에서 '코리아 광군제' 할인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에는 화장품, 패션, 레저, 스포츠 상품군의 200대 인기 제품을 30~80% 할인가에 선보인다.

중화권 대상 해외직판 쇼핑몰인 판다코리아닷컴(www.pandakorea.com)은 9일부터 12일까지 인기 상품을 할인 판매하고 전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빼빼로를 증정한다.

판다코리아닷컴은 마스크팩, 마유크림 등 중국에서 인기있는 한국 화장품을 최대 81% 할인한 가격에 판매한다. 또한 '솔로 탈출을 위한 한국 연예인 따라잡기' 행사를 통해 한국 인기 화장품을 세트로 묶어 최대 66% 할인한다.

해외직판 오픈마켓인 'OKDGG'(www.okdgg.com)는 광군절 행사로 오는 17일까지 100달러 이상 구매 시 전제품 무료배송, 40여개 인기브랜드 최대 88% 할인, 102달러 상당의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한다. 특히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은 50달러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한다.

한편 중국 광군제(솔로데이)는 1이 4개나 겹친데서 유래한 것으로 중국 온라인몰은 이날을 전후해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연다. 지난해 중국 온라인몰에서 이날 하루동안 거둔 매출은 14조4000억원(805억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유현희 기자

친환경 매장 '해빗' 키운다

롯데마트
생활·뷰티 상품군 강화
PB상품 250여개 선봬

롯데마트가 11월부터 자연을 닮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해빗(Hav'eat)' 브랜드를 새롭게 출시하고 매장 확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해빗은 'Easy & Slow Life'를 제안하는 매장 중 하나로 신선, 가공식품의 먹거리는 물론 생활·뷰티 상품군으로 확대해 상품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탄생시킨 새로운 생활 혁신 브랜드이다.

롯데마트는 소비자의 기호와 건강, 안전, 등을 중심으로 자연을 닮은 건강한 습관의 소비를 위한 '해빗' 브랜드 PB 상품 250여가지를 출시했다. 이는 현재 해빗 매장에서 취급하는 전체 1300여종 중 20% 수준이다. 해빗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안전성을 위해 롯데안전센터에서 전 상품 현장 방문을 통한 위생 점검을 거친다.

'해빗' 상품은 차별화 전략으로 ▲친환경 중심의 프리미엄급 신선식품 ▲해외 소싱·글로벌 유명 브랜드 기반의 특화된 가공식품 ▲차별화된 뷰티상품과 인적 서비스를 통한 고객 체험 극대화를 목표로 세웠다.

롯데마트는 지난 10월말 해빗의 이념을 담은 프리미엄 건강 라이프 전문 매장을 롯데마트 송도점과 송파점에 오픈했다. 송도점과 송파점은 매장 오픈 후 친환경, 유기농 제품들의 매출이 40%가량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해빗 매장 전경. /롯데마트

롯데마트는 연내 마산 양덕점 등에 3개 매장을 추가로 오픈하고 내년 1·4분기까지 서울역점, 김포공점, 중계점 등 총 15개점을 추가로 문을 열 계획이다. 내년말까지는 40여개 매장으로 해빗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문영표 롯데마트 상품본부장은 "롯데마트가 새롭게 선보이는 해빗 매장은 '자연을 닮은 건강한 습관'이라는 슬로건 아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한다"며 "현재 250여종의 해빗 전용 PB 상품을 내년에는 500여종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minus@

유통 대목 '빼빼로데이'… 요일따라 희비

10년간 요일·날씨별 매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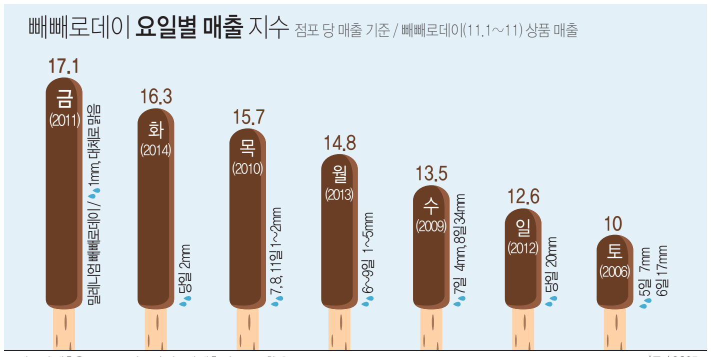
일반 과자형, 급우·동료 간 선물
평일·맑은 날일수록 많이 팔려
비 오는 날 많으면 판매량 감소

빼빼로데이 매출이 요일과 날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메트로신문이 8일 편의점 GS25에 의뢰해 최근 10년간 요일별, 날씨별 빼빼로데이 매출을 조사한 결과 평일이고 날씨가 맑을수록 매출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조사는 GS25 전국매장에서 빼빼로데이 특수를 겨냥한 시즌인 11월 1일부터 빼빼로데이 당일인 11일까지의 열하루간 빼빼로 판매 추이를 분석한 결과다.

조사결과 빼빼로데이 당일이 주말일 때 매출이 가장 낮았다.



*점포 당 매출을 100으로 잡고 각 년도의 매출 비중으로 환산 자료 / GS25

2006년 토요일 매출이 조사 대상 중 가장 판매율이 저조했다. 일요일인 2012년은 매출이 두번째로 낮았다.

반면 주말 전날인 금요일이 빼빼로데이였던 2011년은 매출이 가장 높았다.

2011년은 빼빼로 매출 상승을 위한 다양한 조건이 충족된 해로 꼽힌다. 100년에 한번 1이 6개 들어가는 밀레니엄 빼빼로데이라는 이슈와 함께 1~11일까지 비가 온 날이 당일 하루뿐이었다. 당일에도 강우량은 1㎜ 미만이어서 판매에 지장을 줄 수준은 아니었다.

제과업계와 유통업계는 2011년의 빼빼로데이 매출을 주목했다. 이듬해 이들은 전년과 같은 특수를 예상했다 낭패를 보기도 했다. 2011년 물량이 부족할만큼 특수를 누린 탓에 업계는 2012년에도 빼빼로데이 상품을 대거 준비했지만 주말이라는 변수를 계산하지 못했던 것.

수제 빼빼로는 연인이나 특별한 이들의 구매가 많지만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빼빼로와 같은 스틱형 과자는 같은 반 급우,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주고받기 때문에 주말이면 선물할 대상을 만날 수 없다. 자연히 매출도 감소한다. 2012년은 공교롭게도 빼빼로데이 당일 20㎜이상 비가 내리면서 주말과 비라는 두가지 악재가 겹쳤다. 그 결과 조사대상 요일 중 두번째로 낮은 매출을 기록했 다. 결국 2012년에는 예상보다 매출이 낮아 각 편의점마다 빼빼로데이 이후 빼빼로가 증정상품으로 둔갑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금요일을 제외한 평일 빼빼로 매출은 대동소이했지만 날씨에 따른 희비가 엇갈렸다. 화요일이었던 지난해 빼빼로 매출은 조사대상 요일 중 두번째로 높게 조사됐고 2010년 목요일, 2013년 월요일, 2009년 수요일 순으로 집계됐다. 같은 평일이지만 2009년 매출이 가장 낮았던 이유는 이 시즌 중 비가 38㎜ 이상 내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는 당일 2㎜ 가량 비가 내린 것을 제외하고 시즌 중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다. 2010년과 2013년도 시즌 중 비가 내렸지만 강우량은 미미했다.

유통업계와 제과업계는 올해 빼빼로데이 매출에도 적잖게 날씨 영향이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GS25 관계자는 "빼빼로데이 선물을 준비하는 시기에 비 오는 날이 많으면 매출이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했다"며 "올해는 평일이지만 11일을 앞두고 비가 자주 내려 지난해보다는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metroseoul.co.kr


현대리바트가 중저가 사무용가구 브랜드 리바트 하움을 론칭했다. /현대리바트

현대리바트, 사무실 '노크'

사무가구 '리바트 하움' 론칭
중저가에 친환경 소재 도입
5년내 매출 300억원대 육성

현대리바트가 사무가구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현대리바트는 보급형 디자인 사무가구 브랜드 '리바트 하움(LIVART HAUM)'을 론칭한다고 8일 밝혔다.

'하움'은 높은, 최고라는 의미의 프랑스어 'haut'와 공간이라는 의미의 독일의 'raum'의 합성어로 최고의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현재 사무용 가구 시장 규모는 약 6000억 수준으로 현대리바트, 한샘과 같은 브랜드 가구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비브랜드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리바트는 중소기업발표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스타트업 기업 등 신설 법인수는 8만 5000여개에 달했고 올해는 9만개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돼 보급형 사무가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리바트는 기존 B2B용 사무가구 브랜드 '네오스'의 생산 프로세스 및 운영 역량을 활용해 B2C 사무 가구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대리바트는 B2C 부문 사업다각화와 더불어 브랜드 인지도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리바트 하움은 네오스 대비 50~70% 수준의 중저가로 책정했지만 친환경소재인 E0 보드와 독일 헤펠레사의 잠금장치를 장착했다.

현대리바트는 오는 2020년까지 '리바트 하움'을 300억원대 브랜드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현희 기자

타임스퀘어에도 '해피 크리스마스'

대형 트리 LED 조명 점등
따뜻한 연말 분위기 조성

복합쇼핑몰 경방 타임스퀘어가 따뜻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내년 1월 31일까지 전시 예정인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존은 '더 셰이프 오브 해피니스(The Shape Of Happiness)'라는 콘셉트를 통해 크리스마스의 행복한 형상을 디자인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화려한 LED 조명을 활용한 별빛 정원은 네덜란드 출신 조현실주의 작가 '마우리츠 코르넬리스 에셔'의 작품 속 계단 형상을 적용했다.

타임스퀘어 영업판촉팀 윤강열 차장은 "이번 크리스마스 트리는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따뜻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분위기를 조성해 고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자 마련하게 됐다"며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로 전해지는 연말 분위기를 타임스퀘어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minus@



타임스퀘어가 대형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진행하고 내년 1월 31일까지 크리스마스 트리를 전시한다. /경방 타임스퀘어

G9, 앱 새단장… 백화점 쇼핑·해외직구 쉬워진다

해외브랜드 상품 확대
16일까지 25% 캐시백

큐레이션 커머스 G9이 모바일 앱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G9은 백화점 등 브랜드 상품과 해외직구 상품의 큐레이션을 강화하고, 쇼핑 편의를 위한 검색 기능도 개선했다. 특히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을 맞아 직구 소비자에게 익숙한 해외브랜드 상품이 대폭 확대됐다.

G9는 모바일 앱 상단에 '백화점·몰' 탭을 추가하고 백화점을 포함한 6개 대형 유통업체의 750여개 브랜드 상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G9의 개편된 앱 화면.

해외직구 상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직구' 탭도 신설했다. '혜택' 탭에서는 G9에서 진행중인 모든 프로모션(캐시백, 이벤트, 첫 구매 딜)을 만날 수 있다.

이번 개편은 안드로이드, 윈도우 등 모든 스마트폰 모바일 앱에 바로 적용되며 iOS의 경우 이달 내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한편 G9는 모바일 앱 리뉴얼을 기념해 9일부터 16일까지 '백화점+해외직구 25% 캐시백'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백화점 등의 브랜드 상품이나 해외직구 상품 구매 시 구매금액의 25%(최대 2만원)를 스마일캐시로 지급한다. 백화점 및 해외직구 상품은 선착순 5000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김성현 기자

클라우드 펀딩붐 '간편식'까지

스타트업 '이그니스' 개발 펀딩 사이트 최초 1억 돌파 19일부터 홈페이지서 시판



400㎖를 섭취하면 포만감이 5시간 유지되는 식사대용식이 단기간에 1억원의 투자금을 확보해 화제다. 스타트업 이그니스가 개발한 '랩노쉬(Lab Nosh·사진)'가 주인공이다.

이그니스는 식사 대용 간편식품 랩노쉬로 펀딩 모집 사이트인 와디즈(www.wadiz.kr)의 프로젝트 사상 역대 최고액인 1억원을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랩노쉬는 필수 영양이 고루 함유된 분말을 물과 혼합해 먹는 유동식(Liquid food) 제품. 바빠서 끼니를 챙기기 힘든 사람들이 간편하게 식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다.

이그니스는 지난달 5일부터 '랩노쉬(Lab Nosh)' 제조를 위해 국내 최대 클라우드펀딩 사이트인 와디즈에서 목표금액을 1000만원으로 설정하고 펀딩을 모집했다. 한 달 기한으로 시작한 이 펀딩은 약 29시간 만에 목표액을 달성했다. 또 펀딩 33일차인 지난 7일 오전 1시, 랩노쉬의 펀딩액은 1억원을 넘어섰다. 펀딩에는 총 1830명이 참여했다.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1억원을 넘긴 프로젝트는 랩노쉬가 처음이다.

펀딩 소재인 식사대용식 랩노쉬는 실험실(LAB)과 식사(NOSH)를 합친 이름이다. 다양한 실험을 통해 개발한 '진보적인 식사'라는 의미를 담은 것. 랩노쉬는 실리콘밸리에서 '소일렌트'의 성공에 주목해 만들어진 한국식 간편식이다. 2013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같은 목적으로 개발된 소일렌트는 여유시간이 부족한 실리콘밸리 등 IT종사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식사 대용식이다.

랩노쉬 한 병에는 한 끼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들어 있으며, 1회 분량씩 포장돼 있어 휴대도 간편하다.

이그니스 관계자는 "지난 16일 선배송 이후 제품을 받아본 체험자들이 와디즈 페이지와 SNS에 긍정적인 리뷰를 올리고 있다"며 "재구매를 하려면 다시 펀딩에 참여해 일주일가량 기다려 제품을 수령해야 하는데 체험자들의 요청이 쇄도하면서 펀딩액도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그니스에 따르면 실제로 제품을 받아본 사람들 중 약 20% 정도는 3주 사이에 재구매에 나섰다.

한편 이그니스와 와디즈는 랩노쉬 펀딩을 계획보다 열흘 연장해 오는 18일 마감한다. 19일부터 이그니스 홈페이지(www.labnosh.com)를 통해 랩노쉬를 시판할 예정이다.

박찬호 이그니스 대표는 "식사대용식과 간편식 시장이 커지면서 랩노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며 "랩노쉬는 기존 제품들과는 다르게 한 끼만 대신해도 균형 잡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강한 간편식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metroseoul.co.kr

에머슨퍼시픽, 中 자본 1800억원 유치

中 최대 민간투자사 대상 증자 중화권 네트워크 활용 기대감

부동산 개발업체 에머슨퍼시픽이 중국 자본 투자에 힘입어 아시아권 진출을 위한 초석을 닦는데 성공했다.

에머슨퍼시픽은 최근 공시를 통해 신규 프로젝트 관련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547만3172주, 1806억1500만원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 유상증자 대상자는 중국 최대규모의 민간투자회사인 중국민생투자유한공사의 자회사인 중국국제자본주식회사로 알려지면서 에머슨퍼시픽의 아시아 시장 진출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민생투자유한공사는 중국 민영기업 60개사가 주주로 참여한 투자회사로 금융·보험·항공·물류·부동산 등에 활발한 투자를 하는 기업이다. 60개의 주주사에는 쑤닝전기, 이다그룹, 판하이건설그룹 등이 포함돼 있다.

에머슨퍼시픽은 이번 투자로 중국 리조트 사업 진출은 물론 중국민생투자유한공사의 해외네트워크를 통한 아시아권 공략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이만규 에머슨퍼시픽 대표이사는 "한국시장에서 쌓아온 신뢰와 개발역량으로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중화권의 막강한 네트워크를 지닌 중국민생투자유한공사의 투자로 아시아 시장에 진출해 성장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로 인한 해외시장 공략 가능성을 내비친 것.

에머슨퍼시픽은 힐튼 남해골프&스파 리조트를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가평에 올해 안에 '아난티 펜트하우스 서울' 등을 오픈한다. 내년에는 아난티 펜트하우스 해운대와 힐튼 부산호텔도 완공할 예정이다. 에머슨퍼시픽의 올 상반기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221% 늘어난 486억원, 영업이익은 994% 급증한 197억원이었다.

한편 에머슨퍼시픽은 내달 15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중국측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1명을 선임할 계획이다.

/유현희 기자

'수포성 표피박리증' 환우 초청 가족모임

뉴스킨 코리아 정보 교류·기금 전달

뉴스킨 코리아는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수포성 표피박리증(EB: Epidermolysis Bullosa) 환우와 가족들을 초청해 '제13회 수포성 표피박리증 환우 가족 모임'을 8일 개최했다.

수포성 표피박리증이란 피부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 경미한 자극에도 피부에 물집과 염증이 생기는 희귀질환이다. 현재까지 완치 방법이 없으며, 환자 대부분은 출생시나 영아기부터 증상이 시작되어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뉴스킨 코리아는 2003년부터 수포성 표피박리증 환우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고, 매년 환우와 가족들을 위로하고 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정기 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뉴스킨 코리아 임직원 및 회원, 환우 가족 등 총 170여 명이 참석했고 어린이들을 위해 롯데월드몰 아쿠아리움 투어 시간을 마련했다.

한편 뉴스킨은 회원들이 설립한 '뉴스킨 포스 포 굿(Force for Good) 후원회'에서 모은 기금 1000만원을 수포성 표피박리증 환우회 이순신 회장에게 전달했다.

/김성현 기자 minus@



이대목동병원은 지난 5일 제16회 CQI경진대회를 열고 지난 1년 간 병원 내 의료서비스 개선활동을 평가하고 직원 간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대목동병원

이대목동병원, 의료 서비스 정보 공유 한마당

제16회 CQI 경진대회 1년 간 부서별 개선활동 평가

이대목동병원은 지난 5일 병원 내 김옥길홀에서 제16회 CQI(Critical Quality Improvement) 경진대회를 열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1년 동안 시행된 병원 내 각 부서의 의료 서비스 개선활동을 평가하고 직원 간 정보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박은애 기획조정실장·한종인 QPS 센터장 등 주요 보직자들과 150여 명의 교직원이 참석했다.

최우수상은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혈액종양환자의 건강 다이어리 활용과 효과'를 발표한 82병동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치과 환경 감염 관리 활동'을 발표한 치과·감염관리실·시설과 연합팀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발표한 영양과가 공동 수상했다.

수상팀 선정 후 홍종희 진단검사의학과 외래검사계장의 '크리티컬 밸류(Critical Value) 유선 보고율 높이기'와 김민아 책임약사의 '항암제프로토콜 전산화와 이를 이용한 처방 실무 개발' 특강이 이어졌다.

이번 경진대회는 현장에서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 활동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 사례가 많아 알찬 대회였다는 평을 받았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안보공단, 국가 간 산업안전 격차 해소 논의

국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ILO·WHO와 협력방안 설명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지난 6일 경상북도 구미 금오산 호텔에서 '서울성명서 실행 및 확산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지난 5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1회 국제산업보건대회에서 채택한 서울성명서의 구체적 실행·확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성명서는 산업재해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가의 근로자를 위해 국가간 산업보건서비스 격차를 해소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서울성명서 채택 이후 각 기관의 활동사항과 전세계 확산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들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요마 란타넨 박사는 서울성명 실행의 중요성과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와 전문기관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주카 타킬라 국제산업보건위원회 회장은 유럽의 산업보건서비스 확산 노력과 ILO(국제노동기구)와 WHO(세계보건기구)와의 협력방안을 설명했다.

국내 발표자로는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산업보건서비스 확산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현황과 서울성명 실행을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을 발표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6일 경북 구미시에서 산업안전보건 국제세미나를 열었다. /안전보건공단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서울성명서의 이념과 실행 노력이 전세계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공조체제를 모색해 국가 간 안전보건 격차 해소에 중심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성명서에 대한 각국의 후속조치와 실행결과는 2018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리는 제32회 국제산업보건대회에서 발표된다.

/신원선 기자

2년차 신예의 열정 "노출·귀신役 상관 없어요"



영화 '그놈이다' **이유영**

이유영(25)은 올해 데뷔 2년차에 접어든 신예 배우다. 그러나 그의 필모그래피는 여타의 신인과는 확실히 다르다. 등장부터 화려했다. 데뷔작 '봄'으로 밀라노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 부일영화제 신인여우상을 수상했다. 다음 행보는 더욱 뜻밖이었다. '간신'으로 또 한 번 노출 연기를 감행했기 때문이다. 부담도 있었을 법 하다. 그러나 이유영은 오로지 연기만을 생각하며 다른 배우들이 걷지 않는 길을 과감히 걸어갔다.

세 번째 작품도 쉽지 않은 영화를 골랐다. 여동생을 잃은 청년의 이야기를 호러와 스릴러로 풀어낸 '그놈이다'. 이유영은 죽음을 예견하는 여자 시은 역을 맡았다. 주인공 장우(주원)를 도와주는 인물이다. 전작처럼 노출 연기 같은 부담은 없었다. 그럼에도 귀신을 보는 비현실적인 캐릭터라는 점에서 쉽지 않은 역할이었다. 이유영은 "캐릭터가 색달라서 캐스팅 확정 전부터 연기하고 싶은 의욕이 컸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영화에서는 캐릭터에 대한 책임감을 크게 느꼈다. "최대한 가짜처럼 보이지 말자"는 생각으로 시은에게 접근했다. 귀신을 보고 죽음을 예견하는 비현실적인 인물이지만 "옆집에 살고 있을 것 같은 평범한 여자애"로 관객에게 다가가고 싶었다.

이유영이 시은에게 끌린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장우를 통해 변해가는 시은이 인간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장우가 먼저 시은이에게 말을 걸어주잖아요. 시은이도 자신이 본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이 인간적으로 느껴졌어요. 연기를 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시은이가 점점 다른 아이로 보이도록 노력했고요." 시은의 변화는 영화 마지막에 이르러 차갑고 서늘했던 분위기를 따뜻하게 감싸 안는다. 이유영의 또 다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다.

이유영은 "중·고등학교 때 얼굴이 하얗고 키가 커서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배우를 생각한 적은 없었다"며 웃었다. 그런 이유영이 배우의 길을 선택한 것은 남들과는 다른 이유에서였다. 미용일을 하다 부모님 생각에 뒤늦게 대학 진학을 선택했다. 막연한 마음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에 들어가 무작정 연기를 시작했다. 뜻하지 않은 삶의 흐름이 그를 배우로 이끌었다. 이유영은 이 모든 것을 "호기심"으로 설명했다.

"호기심이 많아요. 연기를 제외하면 한 가지를 진득하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지금도 오르간과 무술, 댄스 스포츠를 배우고 있고요. 리듬체조도 배우고 싶어요. 나이 들면 못하는 걸 다 하고 싶거든요."

'그놈이다'를 마친 뒤 이유영은 홍상수 감독의 부름을 받아 또 한 편의 영화를 촬영했다. "지금까지의 영화 중 제 성격과 가장 비슷한 인물이에요. 평소에는 정말 많이 웃거든요. 감독님이 저보고 덜 웃으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웃음)." 호기심 가득한



죽음 보는 미스터리 인물 연기
'비현실적 캐릭터' 표현에 책임감
배우 생활하며 나 자신도 변해

이 배우가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유영 또한 그런 자신의 앞날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평소 생각을 깊게 하는 편은 아니에요(웃음). 그래서 배우 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좋아요. 생각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를 보고 느끼는 가운데 제 자신도 바뀌게 되거든요. 저는 저를 잃고 싶지 않아요. 조금 더 자유롭고 싶고요. 그러면서도 저만의 매력으로 '연기를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요."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英록밴드 '콜드플레이'가 돌아왔다

내달 앨범 발매 앞두고 신곡 공개



영국의 록 밴드 콜드플레이가 신곡 '어드벤처 오브 어 라이프타임(Adventure of a Lifetime)'을 지난 6일 공개했다.

이번 노래는 다음달 4일 발매 예정인 정규 7집 '어 헤드 풀 오브 드림즈(A Head Full of Dreams)'의 첫 싱글이다. 전작과 달리 긍정의 에너지가 가득한 곡이다.

콜드플레이는 개인적인 슬픔을 담았던 전작 '고스트 스토리즈(Ghost Stories)' 발매 이후 투어를 하지 않고 곧바로 스튜디오에 들어갔다. 어느 때보다 이번 앨범 작업을 즐겼다. 결과물에도 대단히 만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콜드플레이의 새 앨범에는 비욘세, 노엘 갤러거, 토브 로, 메리 클라이튼 등 많은 게스트들이 참여했다. 총 11곡을 수록했다. /장병호 기자

비수기 극장가에 '검은 사제들' 돌풍

3일만에 관객 100만명 넘어서



영화 '검은 사제들'이 개봉 3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침체됐던 극장가도 오랜만에 활기를 보였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검은 사제들'은 개봉 3일째인 7일 토요일 하루 동안 58만1864명의 관객을 모아 누적 관객수 105만3236명을 기록했다.

'검은 사제들'의 흥행 속도는 올해 최고 흥행작인 '베테랑'을 비롯해 '암살'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 등과 같다. 특히 극장가 비수기인 11월에 개봉했음에도 3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해 그 의미가 크다.

'검은 사제들'은 위험에 직면한 소녀를 구하기 위해 미스터리한 사건에 맞서는 두 사제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김윤석, 강동원이 두 명의 사제 역을, 박소담이 위기에 처한 소녀 역으로 호흡을 맞췄다. 영화를 연출한 장재현 감독과 세 배우는 무대인사 도중 100만 관객 돌파 소식을 접한 뒤 관객과 함께 기쁨을 나눴다.

한편 '마션'은 개봉 5주차에도 쉼 없는 흥행을 이어가며 박스오피스 2위 자리를 지켰다. 누적 관객수는 467만9465명이다. 3위에 랭크된 '그놈이다'는 누적 관객수 89만9379명을 기록하고 있다. 5일 개봉한 '스파이 브릿지'와 '더 셰프'는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했다.

/장병호 기자

세계 1위 하스피탈리티 그룹, 원덤월드와이드의 자회사인 RCI와 전략제휴

WYNDHAM EXCHANGE & RENTALS 윈덤 월드 와이드 자회사

RCI®

평택 웨스턴베이 마리나호텔 분양

수익형 호텔분양 6,000만원대 투자에 월 100만원 임대수익 보장

(객실별로 투자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분양홍보관 OPEN

- **수익률 15.6% 보장** (실투자대비, 담보대출 60%기준, 연4%기준, 분양가대비 8%, 1년간) ※ 타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매년 14일 무료사용** (RCI 7일 포함, 교환비 별도)
- **최고급 부대시설 할인혜택**
- **항공권, 렌터카 예약 대행 서비스**
- **중도금 전액 무이자**
- **호텔 개별객실 분양**
- **법인 전문운영 호텔**

평택 웨스턴 베이 마리나 호텔만의

Big premium 7

1. **삼성,LG,현대 등 대기업 해외바이어 풍부**
   삼성전자, LG 등 **끊임 없는 비즈니스 수혜**
2. **해외관광객 수요 풍부**
   한중FTA 효과로 인한 **중국 관광객(50만명 예상)의 1등 관문**
3. **약 70만평 차이나캐슬 "쇼핑특구"**
   현덕지구 국내 최대의 차이나타운(70만평 규모) **2018년 완공 예정**
4. **약 83만평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서해안의 디즈니랜드 평택호관광단지로 인한 **관광객 확보**
5. **강남 수서역 KTX 18분**
   강남 수서역까지 KTX(지제역)로 **18분의 쾌속 교통망**
6. **미군기지 8만명** (군인 & 가족) **평택 이전**
   미군기지 8만(군인&가족)**평택으로 이전으로 인한 호재**
7. **수익률 15.6%** (실투자금 대비)
   실투자대비, 담보대출 60%기준, 연4%기준, 분양가대비 8%, 1년간

시행 메리트플러스 자산개발 시공 청산종합건설 주식회사

운영자문 FILL PM/운영 BE++ER & MORE

수익형 호텔 329실 (분양면적 25㎡~90㎡)

문의 **1800-0288**

| 웨스턴 베이 마리나 호텔 홍보관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58-2 청담푸르지오시티 2층

* 본 홍보물에 사용된 CG, 이미지, 개발계획, 세제혜택, 계약자혜택, 기타 내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일부 다를 수 있으며 홍보관에서 자세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나온 책

회사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대화법

보랏빛소/전용은 지음



효율적인 조직생활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화법을 담은 책이 출간됐다. '회사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대화법'은 회사생활을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법, 나아가 영리한 삶을 살도록 돕는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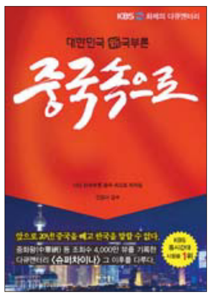
저자 전용은은 치열한 회사생활을 거쳐 부동산경매 전문투자가로 활동하고 있다. 매사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사람들과의 협상을 통해 얻어낸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이 책에 담았다.

대화법에 관한 책은 이미 출판 시장에 많다. 하지만 '회사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대화법'은 누구나 아는 뻔한 이론이 아닌 100% 저자의 리얼 체험을 바탕으로한 대화 기술을 알려준다. 적반하장·안하무인의 사건들, 서로를 무시하고 짓밟고 뒤통수 치는 경험을 통해 저자가 배운 것은 '권력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내게도 힘이 생긴다'는 사실이다. 권력자를 내 편으로 만드는 대화법이 궁금하다면 이 책을 꼭 보기 바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대한민국 신 국부론-중국속으로

베가북스/KBS 다큐멘터리 신국부론 중국 속으로 제작팀 지음



KBS 다큐멘터리 '중국속으로' 제작팀이 만든 책. 현지 수많은 사람을 만나 취재한 결과물이다. 과거와 달라진 중국의 소비문화·경제·도시·고민·산업까지 상세히 분류했다. 중국 경제의 최근 실체를 알 수 있다.

박성우 시인의 창문 엽서

창비/박성우 지음



한국 서정시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박성우 시인의 산문집이다. 직접 찍은 마을 사람들의 모습과 풍경을 담았다. 각각의 사연들을 진솔한 언어들로 눌러 썼다. 일상에 지친 우리에게 보내는 각별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

라이프 트렌드 2016

부키/김용섭 지음



딱딱한 지표와 통계 대신 우리 일상을 통해 내년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생활 문화 전용 트렌드서다. 취향을 숨기는 사람들과 그들의 은밀한 취향이 2016년을 주도할 핫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취향을 감추려는 사람들과 그들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갈 2016년을 이 책을 통해 만날 수 있다.

부모가 의사라도 아이는 아프다

엔자임헬스/박은성·이혜란 지음



한의사 아빠와 의사 엄마가 세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 어떻게 논쟁하고 해법을 찾아가는지 보여주는 책이다. 저자 한의사 박은성 씨와 산부인과 전공의 과정 중에 있는 이혜란 씨가 의학적 견해를 놓고 논쟁하며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은 결국 아이들의 건강에 가장 좋은 해법이 무엇인지로 귀결된다. 의학과 한의학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 보다 최선의 육아 건강법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이 이색적이다.

우리 이렇게 놀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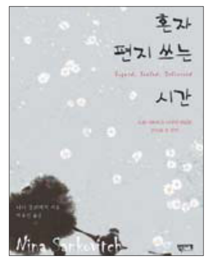
소나무/편해문 지음



아이들과 신나게 놀고 싶은 어른들을 위해 놀이운동가와 교사들이 펴낸 책이다. 놀이 현장을 독자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놀이 배경을 묘사하고 교사와 아이들이 실제로 주고받은 입말을 그대로 담았다. 때로는 아이들의 표정과 속마음까지 읽어 아이들이 놀이를 하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즐거움을 느끼는지, 교사와 아이가 서로 어떻게 소통하며 놀이를 만들어 가는지 볼 수 있다.

혼자 편지 쓰는 시간

북인더갭/니나 상코비치 지음



문자메시지와 SNS 시대에 손편지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다. 글쓰기의 체취와 감촉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혼자 편지 쓰는 시간'은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과 감각을 되살리는 멋진 여행이 될 것이다. 저자는 그 무엇도 흉내낼 수 없는 손편지만의 독특한 유대감, 그리고 편지와 편지 사이에 가로놓인 기다림을 칭송한다.

TV 하이라이트

섹시한 상남자 변신

◆ SBS '힐링캠프-500인'

오후 11시15분





가수 신승훈이 게스트로 출연해 500명의 MC와 진솔한 대화를 나눈다. 데뷔 스토리와 함께 히트곡 퍼레이드를 선보인다. 또한 트레이드마크인 안경을 벗고 '섹시한 상남자 다람쥐'로 변신, 신비주의를 벗고 웃음을 선사한다. MC 김제동도 신승훈의 숨겨진 진실을 밝힌다. /정리=장병호 기자 solanin@

◆ MBC '화려한 유혹'

오후 10시

누명을 쓴 은수(최강희)는 끌려나가 결박을 당한 채 갇힌다. 석현(정진영)은 은수에게 왜 청미를 가장해 돈을 빼내갔냐고 무섭게 묻는다. 형우(주상욱)는 은수를 구하러 나선다.



◆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오후 9시30분

1주년 특집으로 최현석 셰프와 김풍의 냉장고가 공개된다. 홍석천과 미카엘은 면 요리로 대결한다. MC 김성주와 정형돈도 요리사로 변신해 스페셜 매치를 갖는다.



◆ tvN '풍선껌'

오후 11시

행아(정려원)는 친구에서 여자로 리환(이동욱)에게 다가선다. 두렵지만 자신의 삶 곳곳에 리환이 녹아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리환의 변화를 눈치 챈 이슬(박희본)은 고백한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	JTBC	tvN	OCN	채널CGV
05:00 KBS 뉴스 05:10 KBS 걸작 다큐멘터리 (재) 06:00 KBS 뉴스광장 07:50 인간극장 08:25 아침마당 0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55 별별가족 11:00 KBS네트워크특선 촌촌촌 11:55 안녕 우리말 (재)	06:00 2TV 아침 1부 07:00 2TV 아침 2부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09:00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09:40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발칙하게 고고 (재)	05:00 MBC 뉴스 05:10 오늘 플러스 06:00 MBC 뉴스투데이 1부 06:25 MBC 뉴스투데이 2부 07:50 내일도 승리 08:30 생방송 오늘 아침 09:30 MBC 생활뉴스 09:45 기분 좋은 날 11:0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05:00 SBS 5 뉴스 05:10 SBS 특선 다큐멘터리 06:00 모닝와이드 (1~3부) 0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09:10 좋은아침 10:00 SBS 뉴스 10:30 SBS 생활경제 11:30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06:00 힐링의 품격 (재) 07:00 이야기 보따리 (재) 07:30 JTBC NEWS 아침 & 09:00 최고의 사랑 스페셜 10:00 히든싱어 4 (재)	06:00 코미디 빅리그 Hot clip (재) 06:20 삼시세끼 정선편 (재) 08:00 집밥 백선생 (재) 09:2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11:10 응답하라 1988 (재)	05:30 베드 06:50 차형사 08:50 CSI 마이애미 시즌1 (재) 09:50 CSI 마이애미 시즌5 (재) 10:50 CSI 마이애미 시즌8 (재) 11:50 CSI 마이애미 시즌10 (재)	04:30 콜드 워 06:20 세 얼간이 09:00 주말 N 영화 10:10 좋은 날
12:00 KBS 뉴스 12 13:00 명품역사관 역사저널 그날 (재) 13: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14:00 제53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14:30 녹화중계 국회 인사청문회 15:55 튼튼생활체조 (재) 16:00 오늘의 경제 16:10 세계인 스페셜 17:00 KBS 뉴스 5 17:20 시사진단	13:00 시간을 달리는 TV (재) 14:00 KBS 뉴스타임 14:10 생생정보 스페셜 15:05 후토스-잃어버린 숲 (재) 15: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 16:00 TV 유치원 16:3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재) 16:40 동물의 세계 17:00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 (재)	12:00 MBC 정오뉴스 12:20 통일전망대 13: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재) 14:00 키즈 사이언스 5 (재) 15:00 MBC 뉴스 15:10 똑?똑! 키즈스쿨 15:55 타스의 풀이풀이 사자성어 16:25 딱 너 같은 딸 (재) 17:00 MBC 이브닝 뉴스	12:00 SBS 12뉴스 12:50 순간포착 스페셜 14:0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15:00 SBS 뉴스 15:10 잘먹고 잘사는 법 식사하셨어요? (재) 16:00 민영방송 기획 물은 생명이다 16: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17:00 SBS 뉴스 퍼레이드 17:30 안녕 자두야	12:05 송곳 (재) 14:35 JTBC 뉴스 현장 15:50 4시 사건 반장 17:10 5시 정치부 회의	13:00 응답하라 1988 (재) 14:50 문제적 남자 (재) 16:20 코미디 빅리그 (재) 17:5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12:50 전우치 15:40 진주만	12:40 프라미스드 랜드 14:50 댄싱퀸 17:30 더 기버 : 기억전달자
18:00 6시 내고향 18: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19:00 KBS 뉴스 7 19:30 우리말 겨루기 20:25 우리 집 꿀단지 21:00 KBS 뉴스 9 22:00 가요무대 23:00 KBS 뉴스라인 23:40 TV, 책을 보다 24:35 해외걸작드라마 닥터 후 시즌9	18:00 글로벌24 18:30 2TV 저녁 생생정보 1 19:50 다 잘될 거야 20:30 2TV 저녁 생생정보 2 20:55 위기탈출 넘버원 22:00 발칙하게 고고 23: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24: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15 위대한 조강지처 19:55 MBC 뉴스데스크 20:55 아름다운 당신 21:30 리얼스토리 눈 22:00 화려한 유혹 23:10 MBC 다큐스페셜 24:10 MBC 뉴스 24 24:35 스포츠 특선	18:00 생방송 투데이 19:20 돌아온 황금복 20:00 SBS 8 뉴스 20:55 생활의 달인 22:00 육룡이 나르샤 23:15 힐링캠프 500인 24:35 나이트라인	18:30 최고의 사랑 (재) 19:55 JTBC 뉴스룸 21:30 냉장고를 부탁해 22:50 비정상회담 24:20 수상한 미용실 살롱 드림	19:40 리틀빅 히어로 20:40 명단공개 21:40 쓸모있는 남자들 (재) 23:00 풍선껌 24:20 명단공개 (재)	19:00 기술자들 21:30 명량 24:00 황제를 위하여	19:30 다이하드 3 22:00 해무 24:30 점퍼

‘1300만불의 사나이’ 박병호, 어느 구단 가나



박병호가 지난 7일 오전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니혼햄 파이터스 실내연습장에서 2015 WBSC 프리미어12 일본과의 개막전에 앞서 열린 공식훈련에 참석해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 아시아 타자 중 2위 금액
내일 최고응찰액 구단 발표

넥센 히어로즈의 박병호(29)가 역대 아시아 타자 2위에 달하는 메이저리그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 금액을 받았다.

넥센은 지난 7일 "메이저리그 구단이 포스팅을 통해 박병호를 영입하겠다고 써낸 최고 응찰액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메이저리그 구단이 박병호를 영입하겠다고 제시한 최고응찰액은 1285만 달러다. 그동안 포스팅 시스템에 참가한 한국프로야구 출신 야수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이다. 투수까지 포함하면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2573만 7737달러 33센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액수다. 지난해 강정호(피츠버그 파이리츠)가 포스팅에 받은 금액(500만 2015달러)보다도 2배를 훌쩍 뛰어넘는다.

또한 박병호의 포스팅 금액은 역대 아시아 타자 2위에 해당하는 액수다. 1위는 일본의 스즈키 이치로(42·마이애미 말린스)다. 이치로는 2000년 말 일본 야수 중 최초로 포스팅을 신청해 1312만5000 달러를 제시한 시애틀 매리너스가 독점교섭권을 얻은 바 있다.

박병호는 국내프로야구에서 4년 연속 홈런왕과 타점왕을 차지했으며 2년 연속 50홈런을 터트렸다. 이번 포스팅 금액은 미국에서도 박병호의 값어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넥센이 포스팅을 수용함에 따라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조만간 최고 응찰액을 제시한 구단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전할 예정이다. 넥센 측은 "최고 응찰액 구단 발표는 10일 오전을 포함해 그 이후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박병호는 넥센을 통해 "지금까지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해 도와주신 구단과 주위 분들께 감사드린다. 포스팅 결과가 좋게 나왔는데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아직 메이저리그 진출까지 여러 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신중하게 고려하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8일부터 일본 삿포로돔에서 시작되는 프리미어 12 대회에 참가하기 때문에 지금은 대표팀 구성원으로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팀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집중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병호는 앞으로 메이저리그 사무국으로부터 포스팅 최고 응찰액을 제시한 구단명을 통보받게 된다. 이후 공식 에이전트인 옥타곤 월드와이드를 통해 30일 동안 연봉협상을 진행한다.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차두리 "나는 가장 복받은 축구선수"

7일 은퇴식서 "이제 감독·행정가 중 고민"

"세 시즌 동안 많은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한국 축구에서 가장 복 받은 선수입니다."

'차미네이터' 차두리(35·서울)가 7일 은퇴식을 갖고 팬들에게 작별 소식과 감사를 함께 전했다.

차두리는 이날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5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36라운드 수원 삼성과의 경기 전반전이 끝난 후 그라운드로 나와 홈 팬에게 작별인사를 했다.

이어진 은퇴기자회견에서는 향후 계획을 밝혔다. 그는 "감독 자격증을 따는 것은 맞다. 유럽에서 배우는 과정에서 제게 가장 맞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며 "감독과 행정가 중 무엇을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차두리는 2002년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프로 선수로 첫 걸음을 내디뎠다. 2013년 서울에 입단하면서 국내 무대로 복귀했다. 이후 서울 유니폼을 입고 통산 114경기에 출전해 2골 7도움을 기록했다. /장병호 기자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 '슈퍼매치' FC 서울과 수원 삼성의 경기. 하프타임 때 열린 FC서울 차두리의 은퇴식에서 차두리가 꽃다발과 기념패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쇼트트랙 월드컵 남녀 1500m
최민정·곽윤기, 나란히 금메달

최민정(서현고)과 곽윤기(고양시청)가 2015-201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2차 대회 남자와 여자 15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민정은 8일(한국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쇼트트랙 월드컵 2차 대회 여자 1500m 결승에서 2분35초278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1차 대회 여자 1500m 우승자인 심석희(세화여고)는 최민정에 0.18초 뒤지는 2분35초458로 은메달을 따냈다.

이어진 남자 1500m 결승에서는 곽윤기가 2분13초607로 네덜란드의 싱키 크네흐트(2분13초855)를 0.248초 차이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날 금메달로 곽윤기는 1차 대회에 이어 1500m 종목 2연패를 차지했다. /장병호 기자

전북, 제주 누르고 K리그 클래식 2년 연속 정상

남은 경기 관계없이 우승 확정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K리그 클래식 2년 연속 우승을 확정했다.

전북은 8일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5 제주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22승6무8패, 승점 72를 기록한 전북은 남은 두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올해 K리그 클래식 우승을 확정지었다. 2009년과 2011년, 2014년에 이어 통산 네 번째 우승이다.

최근 7년 사이에 네 번이나 우승한 전북은 '신흥 명문'의 자리를 굳혔다. 최강희 전북 감독은 프로축구 사상 최초로 네 번 우승한 사령탑이 됐다.

전북은 이날 제주와의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2시간 늦게 시작하는 포항 스틸러스와 성남FC의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전반 추가 시간에 터진 이재성의 결승 골로 자력으로 우승을 결정지었다.



8일 오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5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전북 현대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 전북 이재성이 전반 추가시간에 골을 성공시킨 뒤 동료들과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은 지난 시즌에도 11월 8일 제주 원정에서 3-0 승리를 거둬 K리그 우승을 확정한 바 있다. 올해도 똑같은 날짜에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했다. /장병호 기자

그랑프리 우승, 아사다 마오 "만족스럽지 않다"

일본 여자 피겨의 '간판' 아사다 마오(25)가 두 시즌 만에 복귀한 피겨 그랑프리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그러나 "만족스럽지 않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아사다는 8일 일본 일간지 닛칸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프리스케이팅 연기는 아직 과제가 많이 남았다고 느꼈다"며 "다음 경기인 그랑프리 6차 대회까지 남은 시간이 적지만 프리스케이팅을 중심으로 연습하겠다. 이번 연기는 만족스럽지 않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사다는 7일 중국 베이징에서 끝난 2015-201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3차 대회 '컵 오브 차이나' 여자 싱글에서 총점 197.48점으로 우승했다.

지난해 3월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이후 빙판을 떠났던 아사다는 지난 5월 은퇴의 기로에서 현역 복귀를 선언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두 시즌 만에 그랑프리 시리즈에 복귀했다.

6일 쇼트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한 아사다는 7일 프리스케이팅에서는 점프 난조 속에 3위로 밀렸다. 그러나 총점에서 일본의 신예 혼고 리카(총점 195.76점)를 1.72점 차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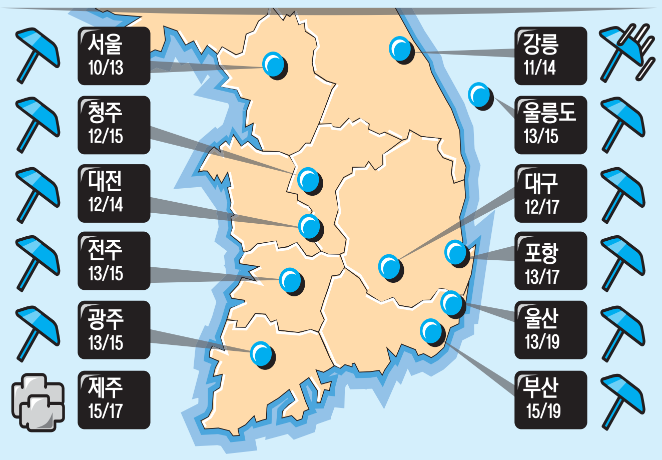
지난 7일 중국 베이징에서 끝난 2015-2016 국제빙상경기연맹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3차 대회 '컵 오브 차이나' 여자 싱글에서 우승을 차지한 아사다 마오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특히 아사다는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에서 자신의 필살기인 트리플 악셀(공중 3회전반)을 모두 성공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프리스케이팅에서 세 차례나 점프 실수가 이어지면서 점수가 깎였다. /장병호 기자

날씨

11/9 월 일출시각 07:05 일몰시각 17:2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자외선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감기가능지수 | 천식-폐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6	4
		8		9	3	2		
5	2			4				
3		4					7	
		9	2	7	4	5		
	5					1		6
				2			5	3
		3	6	1		8		
2	7							

4	9							1
			9			3	6	
	3	6			8			
					7	5	4	
	1	8		9		6	2	
	4	5	8					
			2			8	3	
	8	7			5			
6							5	4

스도쿠 정답

9	3	1	8	5	2	7	6	4
6	4	8	7	9	3	2	1	5
5	2	7	1	4	6	3	8	9
3	8	4	5	6	1	9	7	2
1	6	9	2	7	4	5	3	8
7	5	2	3	8	9	1	4	6
8	1	6	9	2	7	4	5	3
4	9	3	6	1	5	8	2	7
2	7	5	4	3	8	6	9	1

4	9	2	6	5	3	7	8	1
8	7	1	9	4	2	3	6	5
5	3	6	1	7	8	4	9	2
2	6	9	3	1	7	5	4	8
7	1	8	5	9	4	6	2	3
3	4	5	8	2	6	1	7	9
1	5	4	2	6	9	8	3	7
9	8	7	4	3	5	2	1	6
6	2	3	7	8	1	9	5	4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생활 영어

Shall we have pizza delivered to the office?

Co-worker : Time to have lunch. Let's go.

Young : Shall we have pizza delivered to the office?

Co-worker : That sounds like a better idea.

Young : I have a coupon. Let me order.

우리 사무실로 피자 배달시켜 먹을까?

동료 : 점심시간이다. 가자.

영 : 우리 사무실로 피자 배달시켜 먹을까?

동료 : 그거 좋은 생각인데.

영 : 나 쿠폰 있어. 내가 주문할게.

Quiz

Q.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dialogue?
(A) They will eat lunch at the office.
(B) They will have lunch at a restaurant.
(C) They carry their lunch boxes.
(D) They will not eat lunch.

문법Point

Shall we + 동사원형
우리 ~할까요?

어떤 제안을 하려고 할 때 아주 많이 쓰이는 유용한 표현입니다. 보통 1인칭일 때 Shall이라는 조동사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즉 Will we라는 표현을 써서 제안을 표현 하긴 어색하다는 말입니다. Shall이 조동사이므로 당연히 주어 다음에는 동사원형의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퀴즈해설

Q. 들려준 내용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A) 그들은 사무실에서 점심을 먹을 것이다.
(B) 그들은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을 것이다.
(C) 그들은 그들의 도시락을 준비했다.
(D) 그들은 점심을 먹지 않을 것이다.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이사 가려는데 어느 방향이 좋을까요?
서쪽 방향만 피하면 무난합니다

성공녀 여자 62년 11월 14일 새벽

Q 선생님 안녕하세요. 메트로 신문을 보면서 김 선생님의 사주 속으로를 흥미 있게 읽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시니 참으로 좋은 일을 하십니다. 불교 용어 중에 보시라는 것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선생님께서는 지식 보시를 하신다고 봅니다.
저의 고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앞으로도 계속 잘 될 수 있는지와 올해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좋은지 알려 주세요. 이왕이면 좋다는 방향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은데 어디가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생일은 1962년 11월 14일생 새벽 여자 입니다.

A 귀하뿐만 아니라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할 때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 지를 궁금해 합니다. 삼살 방을 따져 가는데 올해는 정 서쪽 방향만 일부 피하면 될 것입니다.
삼살이란 세가지 살(殺)을 뜻하는데 구체적으로 겁살(劫殺)재살(災殺 천살(天殺)을 말합니다. 겁살(劫殺:겁탈당함)은 목숨과 재산을 겁탈 해 간다는 살이며 재살(災殺)은 수옥살(囚獄殺:감옥에 갇힘)이라고도 하는데 관재(官災)·송사(訟事)·감금·납치·노상횡액 등을 말합니다. 천살(天殺)은 하늘에 의한 해·냉해·수해·지진 등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살을 말합니다. 듣기만 해도 무서운 위와 같은 살들이 주관하는 방위를 일컬어 삼살방, 대장군 방이라 합니다.
주로 삼살 방은 이사와 원행지에 길흉방위를 볼 때 적용하는데 올해는 을미년(乙未年)이므로 삼합 국(돼지亥토끼卯양未)을 기준해서 동쪽의 반대 방향이나 삼합 중심의 오행을 충(沖:충돌하고 때려 맞음)하는 방향을 피해야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위라는 공간과 해마다 오는 세운이라는 하늘의 기운이 절대 부딪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삼살 방이라는 것은 개인의 사주를 잠시 접은 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인가에 의문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2015乙未年 우리나라 국민은 전부 서쪽(申酉)으로 이사를 가면 큰일 난다는 식의 획일적인 얘기가 아니라 늘 조심 하라는 메시지로 보면 됩니다. 이러한 획일적인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귀하의 사주를 놓고 보면 올해는 귀하가 사는 방향에서 서쪽으로는 이사를 가지 말아야 하며 삼살 방을 절대로 무시하지는 마십시오. 이왕이면 가려서 이사하는 것이 관습으로 되기도 하므로 굳이 방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1월 9일 (음 9월 28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 **48년생** 지금은 쉴 때가 아닙니다. **60년생** 삼자의 도움으로 이윤이 많은 거래 건이 성사됩니다. **72년생** 다소 이루어질 조짐이 보입니다. **84년생** 가고자 하는 곳에 반가운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 — **49년생** 상대의 마음 돌릴 길이 없습니다. **61년생** 무리한 소망은 빨리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73년생** 외지로 나가지 마세요. **85년생** 부지런히 움직일 때 입니다.

호랑이 — **50년생** 만인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62년생** 주위의 얇은 말 듣고 꺾이지 마세요. **74년생** 타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세요. **86년생** 쇠를 끊을 정도의 힘이 생겨나겠습니다.

토끼 — **51년생** 누군가가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63년생** 하늘이 큰복을 주니 만사형통입니다. **75년생** 얻는 것이 많으니 세상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87년생** 집안이 화목하니 마음이 편합니다.

용 — **52년생** 물가에 가려거든 조그만 미루세요. **64년생** 집안이 화평하니 마음이 편합니다. **76년생** 동쪽이 길한 방향입니다. **88년생**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으세요.

뱀 — **53년생** 건강에 무리 있겠습니다. **65년생** 관제 구설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77년생** 가까운 곳의 나들이는 길합니다. **89년생** 내 생각과는 무관하게 세상이 변해 갑니다.

말 — **54년생**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얻게 됩니다. **66년생**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세요. **78년생** 방황은 끝, 새로운 시작입니다. **90년생** 많은 이들과 함께 어울리세요.

양 — **55년생** 큰 뜻을 이루니 세상의 모범이 됩니다. **67년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79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겠습니다. **91년생** 힘들게 이룬 일일수록 가치 있고 빛나는 법입니다.

원숭이 — **56년생** 희망이 보이니 포기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 매진하세요. **68년생** 지금 조금 부족하여도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80년생** 재물운이 좋습니다. **92년생** 아랫사람을 챙기세요.

닭 — **57년생** 희망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69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81년생** 정혼자 떠나는 여행은 금물입니다. **93년생** 몸이 외지에서 노니 돌아갈 때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개 — **58년생** 여행이나 출장은 미루세요. **70년생** 현 상태를 사수하세요. **82년생** 기울었던 집안이 다시 일어나고 의기소침했던 귀하는 의기양양합니다. **94년생** 내일은 기회가 찾아 올 것입니다.

돼지 — **59년생**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루게 됩니다. **71년생** 달빛이 하늘에 훤하니 하늘과 땅이 다감이 훤합니다. **83년생** 당신의 소질을 보여주세요. **95년생** 뜻이 있는곳에 길이 있습니다.

서울과 상하이의 'N포세대'



송병형의 딴생각

N포세대란 말이 나올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곳이 있다. 아시아 제1의 도시인 중국의 상하이다. 몇 해 전 취재차 상하이를 찾았을 때다. 중심가로 가는 길에 빨래가 창가를 뒤덮은 연립주택이 눈에 띄였다. 빨간 기와 지붕을 한 유럽식 주택이었다. 건물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 탓인지 유독 기억에 남았다. 하지만 취재 목적과는 무관한 일이라 기억에만 담아 두기로 했다. 그러다 상하이 총영사관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재미 삼아' 물어보았다. 상하이에서 몇 해를 보낸 외교관이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재미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였다.

그의 이야기를 간추리자면 이렇다. 상하이의 살인적인 물가에 청년들이 혼자서 방을 월세 낼 엄두를 못낸다. 그래서 청년들 여러 명이 같은 방을 쓰다보니 빨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방을 여러 명이 쓴다면 사생활을 포기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돌아오는 대답은 '상하이 청년들이 포기하고 사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다'는 설명이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청년들의 월급에서 월세를 포함해 기본적인 생활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월급이 적어서가 아니라 워낙 물가가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하이 청년들은 사생활은 물론이고 인간관계도 포기해야 한다. 남의 경조사를 챙길 돈이 없기 때문이다. 상하이 청년들에게 청첩장을 주고 받는 일은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다.

상하이 청년들은 아파서도 안된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저축해 놓은 돈이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올해 10월 18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 비로소 중병에 대한 전면적인 의료보험 시행을 결정했다. 상하이 방문 당시 중국은 의료보험을 실시하고는 있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그저 젊음 하나에 기대는 수밖에 없다. 암과 같은 중병에 걸리면 속수무책이었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3포세대니 5포세대니 하는 말이 유행이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면 3포세대, 여기에 취업과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하면 5포세대다.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청년들이 인간관계를 포기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7포세대니, 9포세대니 하더니 이제는 셀 수 없을 정도라며 N포세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그냥 유행만은 아닌 듯하다. 일요일 출근길, 지하철에서 내려 시청역을 빠져 나오다 바닥에 쓰러져 곤히 자고 있는 20대 청년을 보았다. 입성을 봐도, 남자답지 않게 고운 얼굴을 봐도 노숙자는 아니었다. 토요일밤 친구들과 거하게 한 잔 한 뒤 귀가 길에 지하철역에서 잠 든 것으로 보였다. 술 자리 대화의 주제는 취업난이었으리라. 그래도 친구들이 만나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으니 아직 상하이 청년들처럼 인간관계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닌 듯하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방심해선 안될 일이다. 서울 청년들의 미래가 상하이 청년들의 오늘이 돼선 안된다.

/bhsong@metroseoul.co.kr

장윤정 모친은 왜 '관종'이 되었나



기자 수첩

신원선
<라이프팀>

지난 5일 한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장윤정의 모친 육흥복 씨가 보낸 메일이었다. 3일 각종 언론사에 '윤정이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부탁한다'는 호소 메일을 발송한 데 이어 180도 입장을 바꾼 2차 메일이었다.

1차 메일에서 육 씨는 '못난 에미 때문에 착한 윤정이의 행사가 취소되는 등 손해를 본다'며 딸을 향한 애정어린 시선을 부탁했다. 하지만 2차 메일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윤정이와 연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윤정이는 단 한 번도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 신혼집에 찾아갔더니 경호원이 쫓아냈다'고 폭로했다. 심지어 '독한 딸이 남동생의 급여까지 압류했고 회사 대표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는 등 심한 단어도 서슴지 않았다.

육 씨의 태도로 미뤄보았을 때 장윤정이 먼저 급여압류통지서를 보냈고 육 씨가 첫 번째 메일로 화해 제스처를 취했다. 하지만 장윤정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언론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장윤정의 소속사 코엔스타즈 측은 어떤 대응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013년 장윤정은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 출연, 수억여원의 빚이 있다고 털어놨다. 빚은 장윤정의 어머니와 동생이 사업을 벌이다 생긴 것으로 알려졌고 양측은 억대 소송과 폭로전을 벌였다.

이후 사건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잠잠해졌다.

육 씨는 왜 고요한 수면에 돌을 던졌을까. 개인적으로 오가야할 이야기를 언론사에 알리면서 '가족의 난도질'을 보여주려 한 저의가 궁금하다.

육 씨의 언론플레이는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는 커녕 오히려 장윤정을 향한 동정어린 시선을 유발하고 있다.

직계혈족의 진흙탕 싸움이 다시 불거지면서 장윤정의 방송 활동에 큰 부담만 작용하게 됐다. 언론보도의 중심에 서고 싶어하는 육 씨의 '관종(관심을 바라는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과도 같은 태도가 우습다.

/tree6834@

인사

◇ 고용노동부 ▶승진 ▲고용정책실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김윤태
◇ 법제처 ▶과장급 임용 ▲법령해석정보국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개방형직위) 전태석
◇ MBC ▲보도국 편집1센터 주간뉴스부장 김성우 ▲보도국 편집2센터 뉴스투데이 편집부/앵커 박재훈

부고

▲ 백인국씨 별세, 백현철(㈜기아자동차 부사장)씨 부친상 = 7일 오후 5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 발인 10일 오전 7시30분 ☎ 02-3010-2231
▲ 염송절씨 별세, 김호남(법무법인 우리들 대표변호사)씨 모친상 = 7일 오전 0시, 부산 온종합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9일 오전 9시. ☎ 051-607-0111
▲오은자씨 별세, 문대성(새누리당 국회의원)씨 모친상 = 6일 오후 8시, 인천 동구 청기와 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9일 오전 7시 40분. ☎032-577-0495
▲ 김신박씨 별세, 김경미·희미씨 부친상, 장홍태(KBS부산총국 편제국 촬영감독)씨 장인상 = 7일, 부산 영락공원 9호실, 발인 9일 낮 12시. ☎051-790-5000
▲ 이평우(전 세아제강 부회장·유네스코협회연맹 명예회장)씨 별세, 낙용(메지링크 사장) 준(세아스틸 아메리카 전무) 수진 씨 부친상, 박창우(도코모 인터터치 이사)씨 장인상 = 6일 오후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 발인 9일 오전 7시30분 ☎ 02-2258-5940
▲ 신규태씨 별세, 신광일·세일·영일씨 부친상, 김오수·정영엽·김민찬(한국투자증권 압구정PB센터장)·강승학씨 장인상 = 7일 오후 3시, 정읍사랑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0일 오전 9시30분. ☎ 063-535-1024.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송필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社說

지식연구기업이 한국경제 밝혀준다

최근 우리 증권시장이 재미있다. 과거에 주목받지 않던 종목들이 주목받고 예전에 인기 끌던 종목은 밀려나는 것이다. 지난 6일 한미약품이 처음으로 주당 70만원을 넘어 사상최고가 기록을 세웠다. 국내 제약업 사상 최대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맺은 덕분이다. 한미약품과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의 합계 시가총액이 오랜 세월동안 한국경제 성장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시총 16위의 포스코마저 따돌렸다. 머지않아 시총 10위 안에 들어갈지도 모르겠다. 화장품을 생산하는 아모레퍼시픽이 시총 10위권에 진입한데 이어 이변이라면 이변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변도 아니다. 최근 알게 모르게 진행돼 온 우리 경제의 구조변화가 낳은 결과일 따름이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 국내 시가총액 100대 기업 가운데 41%가 바뀌었다. 조선·기계, 건설, IT·전기전자, 철강 등 수출산업이 밀려나고 식음료·서비스·유통 등 내수 업종이 약진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 포스코 등 중후장대형 산업은 요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업종은 대규모 설비투자를 요하는 장치산업으로, 국제시황에 따라 수익성이 좌우된다. 따라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가 저성장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반면 제약과 화장품 등 축적된 지식과 끈질긴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성과를 내는 산업이 성장세를 타고 있다. 거대한 설비투자를 요하지도 않고 국제 시황에 크게 좌우되지도 않는 산업이다. 수조원대의 자산을 거느리는 대기업이 굳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중견기업이어도 좋고 중소기업이라도 괜찮다. 그저 지식과 연구개발 집념 하나면 된다. 그런 창의적인 기업이 우리 경제의 앞날을 밝혀주는 등불임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경제정책의 기본방향도 수정될 필요가 있다. 막연히 대기업의 거액 설비투자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고식적인 경제운용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대신 지식축적과 연구개발을 열심히 하는 중견·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거세우가 암소보다 싸다?

소비자 119

거세우(중성화수술을 한 소)를 암소로 속여판 업자가 불구속 입건됐다.

이 업자가 입건된 이유는 뭘까. 식품위생법위반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이 이유다. 소는 축산물이력제를 통해 어느 축산농가에서 키워서 언제 도축했는지 등을 명시하도록 돼 있다. 축산물 이력제는 소의 주민번호와 같다.

결국 이 업자의 입건 이유는 품질이 뒤떨어지는 암소로 속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축산물 이력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다.

그렇다면 거세우는 무조건 암소보다 쌀까.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아니다. 소고기는 육량과 육질에 따라 등급이 나뉜다. 흔히 마블링으로 구분하는 것이 육질에 대한 등급인데 소고기를 구매할 때 1등급, 1+등급, 1++등급 등으로 나뉜다. 물론 2등급도 있지만 육류바이어나 유통업자들는 통상적으로 1등급 이상만 구이용으로 선별한다.

거세우는 번식을 목적으로 하는 대신 철저하게 고기를 목적으로 키워진다. 거세를 하는 이유는 수소 특유의 누린내를 없애기 위함이다.

암소는 중성화를 하지 않아도 특유의 잡냄새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암소를 선호하는 이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암소의 경우 출산이 잦으면 그만큼 등급이 내려가기 쉽다. 때문에 암소가 무조건 거세우보다 비싸다는 것도 편견이다. 여러번 출산을 한 암소보다는 거세우가 더 비싸게 판매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한우로 유명한 강원도 횡성 등지에서 판매되는 소고기도 대부분 거세우다. 한우가 특화된 지역에서는 개체수 보호를 위해 암소의 도축을 제한하고 전략적으로 거세우 판매 비중을 높인다.

암소보다 거세우가 비싸다는 것이 편견임을 다시한번 알려주는 대목이다.

/유현희 기자 yhh1209@

ROYAL PALACE

찾았다! 보았다!
중심상권을 모두 누리는 자리!

배곧신도시, 주변 38만 근로자 수요
서울대가 선택한 바로 그 자리!

☑ 스트리트 몰이 대세다!
☑ 광장이 있어야 진짜다!

1개의 점포에서 2배의 수익을!
다인 로얄팰리스 배곧 상가분양!

모두가 탐내던 배곧신도시 중심상권에 신개념 상가 로얄팰리스 스퀘어 스트리트몰이 옵니다.
풍부한 수요에서 뛰어난 미래가치, 프리미엄까지 놀라운 투자가치를 더 특별하게 만나세요!

- 동급 최고의 전용률
- 층고 5.5M이상
- 권리금 無 신규상가
- 중앙 대형 팰리스가든
- 중심상업지구 유동인구 밀집
- 전용면적 대비 최저분양가



배곧신도시 최대상권의 중심에서 완벽한 성공을 잡으십시오!

신도시 중심상권인가?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 재학생들이 주목하는 제2의 대학가 상권 인근 복합 쇼핑몰,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롯데마트 등 집중
배후수요가 풍부한가?	시화, 반월, 남동스마트허브 38만여 명 근로자가 주목하는 상권 로얄팰리스 720세대 독점, 배곧신도시 56,000명이 다니는 길목
트랜드를 앞서가는가?	최신 스트리트 몰, 단지 중앙의 대형 팰리스 가든을 통한 집객 층고 5.5M 이상의 복층상가로 1개 점포에서 2배의 수익 창출

시행사 (주)로얄 / 베스트홀딩스(주) 시공사 다인건설(주) 신탁사 KOREA trust 코리아신탁 SAENGBO 생보부동산신탁



다인 로얄팰리스 문의전화
02)6334-9395

청약방법 ■ 입금계좌 : 기업 021-644-6661 ■ 청약금 : 100만원 ■ 예금주 : (주)로얄